

#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現況

申 喆 均 (統一研修院 教授)



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 목 차

1. 북한의 統治體制 특징 .....	3
2. 朝鮮勞動黨 .....	6
3. 朝鮮勞動黨의 友黨 .....	29
가. 朝鮮 社會民主黨 .....	31
나. 朝鮮天道教 靑友黨 .....	36
4. 社會團體 .....	40
가. 勤勞大衆團體 .....	40
나. 統一推進 前衛團體 .....	61
다. 文化·藝體能團體 .....	80
라. 宗教團體 .....	88
마. 其他 .....	104
5. 國際親善 및 海外 親北團體 .....	108
가. 國際親善團體 .....	108
나. 海外 親北團體 .....	118
6. 結 論 .....	122



# 1. 북한의 統治體制 특징

공산주의국가의 권력구조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모든 권력이 黨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당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며 국가기관은 당의 노선과 방침,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기만 하는 정치 도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북한만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와는 달리 당 위에 군림하는 유일적 절대권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그들이 시종 숭배하는 이른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이다.

「조선로동당 규약」 맨 첫머리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창건된 주체형의 혁명적 맑스-레닌주의당이다”라고 규정하여 조선노동당은 바로 김일성이 창건한 당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하면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해 이룩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킨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렇게 볼때 북한 통치체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김일성의 노동당 1당독재 체제에 의한 유일적 지배체제이다.

이러한 북한정치체제의 특징은 첫째, 김일성 주체사상, 혁명사상의 지도하에 노동당이 국가기관이나 각종 사회대중조직을 위한 선전선동 조직에 대한 절대적인 '당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바 모든 기관이나 조직은 당의 지도와 領導 밑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노동계급의 영도라는 전제하에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를 실현한다고 하지만 수령에 의해 유일적으로 영도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공산집단은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독재체제아래서 당은 최고의 조직형태로서 혁명의 참모부이며 嚮導的인 領導 역량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등과 같은 각종 정치조직들이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며 대중을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 세우는 引傳帶이며 당의 노선과 방침을 집행하는 무기에 불과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뿐만아니라 조선노동당의 모든 외곽단체들은 바로 대남통일전선을 의식한 단체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셋째는 혁명과 건설을 추진함에 있어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死活的 의의를 갖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는 바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절대시하는 1인 영도체제라는 점이다.

넷째는 혁명위업을 계승·완수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다.

1973년 9월 노동당 5기 9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일을 김일성 독재권력의 후계자로 결정하고 그 기반구축을 강화해 왔으며, 1980년 노동당 6차대회를 계기로 그를 제 2인자로 공식 표면화 시켰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은 명실상부한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모든 정책을 주도하는 김일성의 化身, 제2의 독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정치제도는 행정, 입법, 사법의 3권이 미분화 되어 그 기능이 수행되고 있는 바 이들 기관들은 오로지 노동당의 노선과 방침에 따라 당과 수

령 김일성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때 북한의 정치체제는 바로 전체주의 專制정치의 독재 典型으로 분류되며<sup>1)</sup> 전체주의 체제중에서도 레닌주의 전체주의 유형에 해당되고<sup>2)</sup> 1人支配의 김일성 신정체제라고 할수 있다.

## 2. 朝鮮勞動黨

### 가. 沿革

북한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창건일을 1945년 10월 10일로 공식화하고 있다.<sup>3)</sup>

그러나 사실은 1945년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회의 마지막 날(10월 13일) 채택한

- 
- 1) Carl J. Friedrich & Zbigniew K. Brz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 Autocracy, 2nd ed., p.16, Prager, New York, 1965.
  - 2) Ghita Ionescu,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s, pp.43-50, Macmillan, London, 1972
  - 3) 김일성의 평양귀환에 대해 1945년 「조선중앙년감」(평양:조선중앙통신사, 1949), pp.32-33에서 “1945년 10월 10일에 평양입성”이라고 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김일성의 노동당 창건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정치로선과 조직강화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창설된 것은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었다.

그 후 1945년 12월 17-18일 同分局 第3次 擴大執行委員會 會議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북조선공산당」으로 공식 발표없이 개칭하였고<sup>4)</sup> 다시 1946년 8월 30일 해방이후 만주에서 들어온 延安派 金料奉을 중심으로 결성된 「朝鮮新民黨」과 합당하여 「북조선로동당」으로 변신하였으며, 1949년 6월 30일 1국 1당 원칙을 표방하고 월북한 남노당과 연합하는 형식으로 「조선로동당」으로 표방한 것이다.

## 나. 지도이념, 목표, 사업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前文)을 보면 “조선로동당은 로동계급과 전체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이며 전체 근로대중 조직중에서 최고형태의 혁명조직”이라고 明示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의 이념·목표에 관한 변화는 당 규약의 변화과정에서 알 수 있다.

---

4) 「북조선공산당」이란 명칭을 처음 공식사용한 것은 1946년 1월 29일 출판물에서 확인됨.

1·2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당 규약에서는 노동당의 이념을 ‘마르크스·레닌주의’로 규정하였다. 그러다가 1956년 4월 노동당 3차대회에서 규정한 규약에서는 ‘공산주의 사회건설’이 최종목표임을 천명했고, 1961년 9월 4차대회에서 개정한 규약에서는 노동당이 이른바 “항일무장투쟁에서 이룩한 혁명전통의 계승자”라고 규정했다.

3차대회규약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혁명전통’이 접목되기 시작한 노동당의 이념은 드디어 1970년 11월 5차대회를 기하여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창조적으로 적용’했다는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80년대에 와서는 1980년 10월 6차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체사상을 노동당의 유일한 지도 이념으로 명문화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당의 최종목표에 있어서도 종전의 공산주의 사회건설 이외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추가시키고 당면 목표를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의 완수’로 설정하였다.

조선노동당 規約은 前文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sup>5)</sup>고 규정하였다.

북한은 또 당규약 전문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실시와 공산주의 건설의 총노선으로서는 千里馬운동과 사상·기술·문화혁명을 추진한다”하고, 또한 대남전략과 관련해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사회민주화와 생존권 투쟁을 적극지원하고 조국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기초하여 통일을 이룩하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못 박고 있다.<sup>6)</sup>

그리고 당 사업의 기본원칙으로서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하고, 항일유격대 사업방법, 靑山里정신 및 청산리방법을 관철하며 온 사회의 혁명화, 노동계급화, 인텔리화를 촉진한다”고 하고 있다.<sup>7)</sup>

---

5) 平和統一研究所, 「北韓概要」(1986. 12. 20) 北韓勞動黨規約, p.339

6) 「북한개요」, 상계서, p. 340

7) 「북한개요」, 상계서, p. 340

## 다. 당원 및 黨勢

당원은 만 18세부터 입당할 수 있다.

당원은 규정된 후보기간을 마친 후보당원 가운데서 받아들인다.

당원의 임무를 보면 ① 당원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 있어야 한다. 즉 당과 수령에 무한히 충성하고 당의 요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옹호해야 한다. ② 당원은 黨性을 부단히 단련하기 위해 높은 조직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여야 한다. ③ 당원은 고상한 공산주의적 도덕성을 소유하고 조직과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④ 당원은 집단의 革命化투쟁을 지도하며 자신과 가족의 혁명화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⑤ 당원은 사회주의 조국을 튼튼히 보위하여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sup>8)</sup>

다음 黨勢를 보면 창당 초기 (1945. 12)에 노동당은

---

8) 「북한개요」, 노동당규약. 제 1장 당원 p. 341

4,530명의 전위조직으로 출발하였는데, 그후 7년이 지난 195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5차전원회의 때는 무려 100만당원을 확보하고 약 5만개의 세포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제6차 당대회가 열린 1980년에는 당대회에 3,220명의 당대표(결의권 대표 : 3,062명, 발언권 대표: 158명)가 참석했는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노동당 총당원 수는 약 3백만 정도로 추계된다.

이것을 기준으로 1개 세포당 당원을 15명으로 잡는다면 (당 규약상에는 5~30명) 약 20만개 정도의 당 세포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당원의 人口對比는 17% (6차 대회 당시의 북한인구를 1,769만명으로 추계할 경우)에 이른다.<sup>9)</sup>

---

9) 「북한개요」, 前掲書 p. 31



그런데 북한의 근년 이같은 당원의 급격한 증가추세는 김정일 지지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3대혁명소조」중심의 전후세대 엘리트들의 대거 입당, 그리고 사회발전에 따른 산업구조 및 업무의 복잡화로 당원의 비율확대를 통해 각급기관과 공장·기업소들에 대한 당의 지도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인구의 자연증가율에 의한 현상으로 평가된다.<sup>10)</sup>

## 라. 기구 및 조직

### (1) 조직원칙과 조직구조

북한노동당 규약 제 11항을 보면 “당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한다”고 못박고 이를 아래와 같이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②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

10) 「북한개요」, 전게서 p. 31

③ 모든 당 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된다.<sup>11)</sup>

위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민주주의와 중앙집권제가 합쳐진 용어이다. 여기서 민주주의는 각급당 조직의 지도기관이 선거에 의해 구성되고 당지도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을 총화, 보고한다는 것을 뜻하며 중앙과 지방의 권력기관이 근로인민대중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중앙집권제란 상급당 조직이 하급당 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검열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 조직에 자기사업을 정기적으로 보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당의 중앙조직

### (가) 당 대회

현행 노동당규약에 따르면,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 대회이다.

---

11) 統一研修院, 「民主統一論」 - 北韓實態 - 李禎秀, 「北韓의 統治理念과 權力構造」, p. 27. 1989.



그리고 당대회는 5년에 1회 당중앙위원회가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그기간을 늦출수도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노동당 규약 제 22조에 명시된 당대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당 중앙위원회 및 당 중앙검사위원회의 事業總和
- ② 당 강령과 규약의 채택 또는 수정보완
- ③ 당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기본문제 결정
- ④ 당 중앙위원회 및 당 중앙검사 위원회 선거등이다.<sup>12)</sup>

그러나 당 대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미리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만 하는 기능 밖에 없다.

노동당의 최고지도기관이라는 당대회 개최현황을 보면 (표2)와 같다.

---

12) 「북한개요」, 전게서 p. 347

< 표 2 >

黨大會 開催現況

黨大會	開催日字	대표 수	대표구성
北朝鮮勞動黨創立大會	1946.8.28~30	801	노동자:183 농민:157 사무원:385 기타: 76
北朝鮮勞動黨2차大會	1948.3.27~30	999 (이중 9名 不參)	노동자:466 농민:270 사무원:234 기타: 29
朝鮮勞動黨 3차大會	1956.4.23~29	916 (이중2名 不參)	노동자:439 농민:192 사무원:246 기타: 39
朝鮮勞動黨 4차大會	1961.9.11~18	1,657 (이중 3名 不參)	노동자:944 농민:451 사무원:191 기타: 71
朝鮮勞動黨 5차大會	1970.11.2~13	1,734 (1)	
朝鮮勞動黨 6차大會	1980.10.10~14	3,220 (2)	

※ 7次大會는 1990년에 해당하나 개최여부는 미정임.

출처: 各黨大會 代表資格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1) 발언권만 갖는 대표 137명 포함.

(2) 발언권만 갖는 대표 158명 포함.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5기 19차 전원회의에서의 6차 당대회 개최관련 결정, 「로동신문」(79.12.13)

## (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사이의 모든 당 사업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최고 지도기관이다.

중앙위원회는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한다.

노동당조직은 일체 비공개된 가운데 그 구성현황이 파악되지 않는다. 그러나 각종회의등 공식행사를 통해 그 변동사항을 추정해보면 조직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앙위원회는 90.1.5 개최된 6기 17차 회의를 기준으로 正委員 179명 후보위원 14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표3 참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중앙위원회 비서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당 중앙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全黨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고
- ② 당의 노선과 정책수립 및 그 실행을 조직 지도하며
- ③ 당과 혁명대열을 공고히 하고 행정 및 경제사업

을 지도 조정 하며,

- ④ 혁명적 무력을 조직, 그들의 전투력을 높이고
- ⑤ 정당 및 국내외 기관의 활동에서 당을 대표하고
- ⑥ 당의 재정을 관리한다.

#### (다) 정치국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6개월에 한번이상 열리는 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사실상의 최고 핵심부서이다.

정치국에는 常務委員會가 노동당의 사실상 최고 통치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구성원은 김일성, 김정일과 인민무력부장 吳振宇등 세명으로서 이들이 북한에서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다.

정치국은 상무위원을 포함하여 정위원 14명, 후보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위원 14명이 현재 북한에서 최고 권력순위이다. 그 순위는 ① 김일성 ② 김정일 ③ 오진우(인민무력부장) ④ 연형묵(정무원총리) ⑤ 박성철(부주석) ⑥ 李鍾玉 :부주석 ⑦ 徐哲 :당검열위원장 ⑧ 許鏞 (조평통위원장) ⑨ 김영남 (외교부장) ⑩ 강성

산(함북도당책임비서) ⑪ 홍성남 ⑫ 서윤석 ⑬ 계  
응태(비서) ⑭ 전명호(비서)(별표 3참조)

김일성은 이른바 ‘수령’으로서 노동당 총비서, 정치  
국 상무위원회 정위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국가  
주석으로 노동당 및 행정기관 전권을 장악하고 있다.

또한 아들 김정일은 ‘지도자 동지’로서 정치국 상무  
위원회 정위원, 비서국 당 사업전반담당 비서, 중앙군  
사위원회 위원으로 김일성에 이어 제 2의 실권자이다.

## (라) 중앙군사위원회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는 노동당의 군사정책의  
수행방법을 토의 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全 武力  
의 강화와 군수산업의 발전에 대한 사업을 조직 지도  
하며, 말하자면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위한 정책집행  
을 담당하는 총 기관이다.

중앙위원회에 군사위원회가 조직된것은 1962년 12  
월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군사력 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한후 부터이다. 그 명칭은 1984년 이

후 「중앙군사위원회」라고 개칭된 것이다.<sup>13)</sup>

#### (마) 검열위원회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는 反黨·反革命的 종파행위를 하거나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 및 규약을 준수하지 않아 당 규율을 위반한 당원들에게 책임을 추궁하며, 당의 규율문제와 관련된 道(직할시) 당위원회의 제의 및 당원의 新소(申訴)를 심의 해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sup>14)</sup>

창당대회 규약에는 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를 당 대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차대회때 부터는 중앙위원회의 지시밑에서 사업을 하고 그 구성원도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검열위원회를 중앙위원회의 직접 지도하에 둔 이유는 당의 최고지도 기관인 중앙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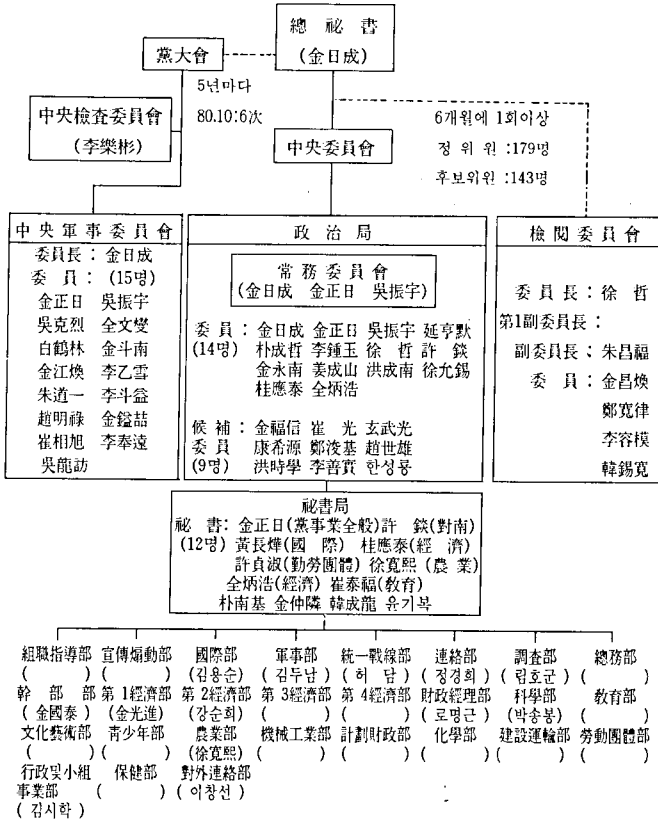
#### (바) 중앙검사위원회

---

13) 북한 노동당규약 제 3장 27조

14) 북한 노동당규약 제 3장 28조

### 北韓勞動黨機構 (1990. 1. 현재)



道(直別市) 黨委員會 責任秘書

平壤市	開城市	南浦市	咸南	咸北	平南	平北	黃南	黃北	慈江	兩江	江南
崔文善	金基善	朴勝日	洪時學	姜成山	徐允錫	金炳律	문성술	康賢洙	李奉吉	金源田	林享九

중앙검사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선거하여 구성되며,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sup>15)</sup>

### (3) 지방당 조직

道(직할시)黨과 市(구역)·郡黨등 각급 지방당 조직체계는 당 중앙지도기관의 조직원칙에 준하고 있다.

지방(당 대표회)은 3년에 1회 소집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규정된 기간보다 빠르게 또는 늦게 소집할 수 있다. 지방(당 대표회)에서는 당해 지방과 검사위원회 정원과 상급당 회의에 파견할 대표를 선거하고 당해 지방 당위원회와 검사위원회의 사업을 총화하도록 당 규약에 규정되어 있다.

각급 지방 당위원회 전원회의는 집행위원회, 책임비서와 비서를 선거하고 비서처, 군사위원회 및 검열위원회를 조직한다.

각급 당 집행위원회회의는 1개월에 2회이상 소집하며, 전원회의와 전원회의 사이에 당 위원회의 명의로 당내 사업을 조직 집행하며, 행정 및 경제사업을 지도한다.

---

15) 북한 노동당 규약 제 3장 29조



당 세포는 당원생활의 거점이며 당주위에 대중을 집결시키고 대중속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직접수행하는 당의 전투단위이다.

당세포는 당원 5명에서 30명까지의 단위에 조직한다. 그리고 당원 31명 이상이 있는 단위에는 ‘초급당조직’을 둔다.

초급당조직과 당 세포사이에 당원 31명이상이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 단위에는 ‘부문(部門, 마을) 당조직’을 둘 수있다.

또한 초급당조직과 부문당조직사이에 있는 생산단위나 기타 활동단위에 ‘분초급 당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다.

당 세포 총회는 1개월에 1회이상 소집한다.

당 기층조직의 주요임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그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접수하여 끝까지 옹호 관철토록 하며, 당의 유일사상에 어긋나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적 유교사상, 수정주의, 교조주의, 맹종주의, 종파주의, 지방

시(구역)·군 당위원회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주: 당규약 제 5장 38조)

- 1) 당원들과 근로대중속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한다.
- 2) 당원 및 근로대중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해야 하며,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킨다.
- 3) 근로대중들이 자기임무를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한다.
- 4) 勞農赤衛隊에 대한 정치 사상 교양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전투태세를 완비하며 군사동원사업을 보장한다.

道(직할시) 당위원회는 下級黨 조직을 강화하고 그들의 활동을 감독하며, 市(구역)·군 당위원회는 초급당조직 집행기관의 강화 및 그 기능과 역할의 향상을 위해 그들을 지도 幫助한다.<sup>16)</sup>

#### (4) 당의 基層 조직

##### (가) 당 細胞

당의 최하 기층조직은 당 세포이다.

---

16) 「북한개요」, 전계서 p. 349

주의 및 가족주의에 대해 견결히 투쟁하여 주체 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과 단결을 끊임없이 강화한다.

- ② 하급간부대열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며, 당 핵심을 주지·교양하여 부단히 그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 ③ 노농적위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정치·사상·교양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당이 부를때 항시 동원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sup>17)</sup>

#### (4) 인민군대내 당 조직

북한의 노동당 규약 제 7장 46항에서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직속하며 그 지도밑에 사업하고 자기사업에 대하여 당 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17) 「북한개요」, 전게서 pp. 351~352

또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 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한다고 되어있다.

이렇게 볼때 북한의 군인은 한마디로 당의 군대이다. 이러한 군의 당조직화 관계는 공산주의국가들에서 볼수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것을 ‘以黨領軍’으로 표현하기도 한다.<sup>18)</sup>

조선인민군대내 각급 당조직의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있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위해 투쟁하며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조직들을 강화한다.

인민군을 一當百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 붉은기(旗) 쟁취운동과 붉은 기

---

18) 統一研修院, 「民主統一論」, 李禎秀, 전계논문 p. 34

중대(旗中隊)운동을 적극전개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sup>19)</sup>

북한은 군내부에서 김정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가지 수단과 조치를 강구해 왔다. 이를 보면

- ① 인민군 충성의 첫째항에 “우리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다”로 되어 있다.
- ② 사단급 이상 군대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김일성사상연구실’에 ‘김정일사상연구실’을 부설하였다.
- ③ 85. 4. 13 김정일의 친위그룹인 吳克烈 上將등 7인을 대장으로 특별 승진시켰는바, 이는 黨·軍관계가 밀착되었다는 사실 등을 들수 있다.<sup>20)</sup>

또 80년 6차당 대회에서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 등장하면서 당조직 일부를 변경하였는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당중앙위원회내에 당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의 최고지휘관들을 망라하여 위원회를 구성했다.(별표 3 참조) 이는 바로 김정일의 등장으로 黨·軍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19) 북한 노동당 규약 제7장, 「조선인민군대내 당 조직」 p. 353

20) 李禎秀, 「民主統一論」, 전게서 p. 34

이와같이 북한의 통치구조는 김일성 1인의 노동당 통치 체제로 구축되어 있으며 오늘날 자유민주국가에서 보는 민주주의적 복수정당체제는 찾아 볼수 없다.

1989년에 들어와서 김정일은 10월 26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린마」사장과 의 서면회견<sup>21)</sup> 에서 전례없이 黨의 강화와 그 영도적 역할이 提高되어야 함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혁명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한 현시기 당을 강화하고 그 영도적 역할을 높이는 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이다”

-“당 강화의 기본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의 확고한 실현이다”

-“당안에 이색적인 사상을 허용하면 당이 사상적으로 와해되고 조직적으로 사분오열된다”

-“당 생활을 통해서만이 당원들의 당성과 혁명성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전투적 기능을 높여 나갈수 있다”

-“당사업체계와 방법은 영도의 유일성을 보장해야

---

21) 國土統一院 조사연구실,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린마’ 사장의 질문에 대한 김정일의 답변 내용 分析 p. 1~2

한다”

김정일은 상기 쿠바 「그린마」사장과의 회견에 76.5%를 당사업에 대해 언급한 바, 이는 바로 노동당 1당 독재체제의 계속 固守를 재천명한 것이라 하겠다.

김정일은 여기서 東歐에 파급된 민주화의 도미노 물결을 의식, 현 정세를 “혁명정세가 준엄하고 복잡한”시기로 규정했고 이러한 시기에서는 무엇보다도 당을 강화하고 ‘수령’중심의 “사상의지적 통일, 단결”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 3. 朝鮮勞動黨의 友黨

#### <우당(友黨)정책과 그 실태>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 53조에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sup>22)</sup>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적 정당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정치사회단체나 조직들은

---

22) 北韓憲法 第 53條

唯一黨인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외형상 정당으로 내세운 것이 있는데 이는 이른바 노동당의 우당으로 1945년 11월 3일에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과 1946년 2월 8일에 창립된 「천도교 청우당」(天道教 靑友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실제적인 정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그 역할은 ① 노동당의 지도노선을 추종협조하며 ② 對南 비방성명발표 ③ 통일문제등 남북한 관계와 관련된 정당·사회단체연석회의의 개최를 지지찬동하는 것으로서 이름뿐인 단체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마치 복수정당제도가 있고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고 있는 것처럼 위장, 기만술책을 펴고있다.

북한공산집단이 내 세우는 「우당정책」이란 민주주의를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그 실례로는 다음에 기술될 「조선민주당」의 경우를 들수 있는데 조선민주당의 당수를 역임한 崔庸健이 그 당시 조선노동당의 부위원장을 겸하고 있었던 바



노동당의 시너로 된 것이나,<sup>23)</sup> 이른바 우당이라는 「조선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의 강령과 규약들이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규약을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조선노동당과 행동통일을 하도록 노동당 외곽단체로서의 시너로 이용하고 있는데서도 알수 있다.

그러면 노동당의 우당인 「조선사회민주당」과 「조선천도교청우당」의 실태를 간략히 살펴보자.

## 가. 조선 사회민주당

〈조직 현황〉

〈1989년 6월 현재〉

中央委員會 委員長	李季白
副委員長	김룡준 김태섭 金錫俊 廉國烈 金成律
政治委員會	
委員	廉國烈 金成律 김태섭 金錫俊 고기준 송영국
組織部 部長	고기준
宣傳部 部長	김재연
副部長	박노영
國際部 部長	송영국

23) 統一研修院,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장석은 p. 21. 1984

職責不明 部長	최명찬	김도연
副部長	유병준	리철근
平壤市代表	김석준	
平南道代表	고학진(傳道師)	고기준
平北道代表	심인성	
咸北道代表	김재연	
黃南道代表	림현달 (牧師)	
開城市代表	김득용 (牧師)	
黃北道代表	김태섭	
江原道代表	박노영	

소련점령군 사령부는 북반부의 민주기지화를 위한 단계적 전략전술로서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을 내세워 민족주의인사 曹晩植선생에게 정당조직을 제의하였다. 소련점령군 사령부가 그때 그들의 전략전술로서 조만식선생에게 창당을 제의했던 명분은 해방후 혼란해진 민심을 수습하는 길은 북한지역에서 신망을 받고 있는 古堂선생이 정당을 만들어야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될 수 있다는 것이었으며, 또한 고당이 정당을 만들어 당수가 되면 김일성은 부당수가 되어 對軍政관계 절충을 담당하겠다는 속셈이었

다.<sup>24)</sup> 그러나 고당은 조국의 분단 상태에서 정당을 만드는것은 남북분할을 영구히 고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러나 정국은 계속 혼미해지고 김일성은 계속 정당을 창당할 것을 조만식선생에게 위협하자 조만식선생은 소련점령군 사령부의 사전 전략전술에 의해 1945년 11월 3일 평양에서 「조선민주당」을 창당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때 당시 조만식선생에 의하여 창당된 조선민주당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소련군정의 북반부 민주기지화 전략에 따른 강요된 창당이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해서 조선민주당 창당 前夜에 김일성은 소련 군정의 비호하에 조정자의 위치에서 조선민주당과 공산당을 적절히 조정하는것이 더 이롭다는 판단 아래 자기를 대신하여 崔庸健과 金策을 조만식선생에게 추천했다. 그리하여 최용건이 부당수가 되고 김책은 당 서기장과 정치부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후 조만식선생은 모스크바 三相會議에서 결의된

---

24) 統一研修院,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李禎秀, p. 6

신탁통치안에 반대한 이유로 숙청되었으며 그 자리에 최용건이 당수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조선민주당은 완전히 조선노동당에 예속된 것이다.

최용건이 당수로 되자 당의 고위간부 李允榮, 韓根祖, 金炳淵, 李宗鉉, 白南弘등이 38선을 넘어 월남하여 1946년 1월에 당의 본거지를 서울로 이전했음을 발표하고 활동을 개시하였다.

한편 1948년 3월 「조선민주당」은 제3차전당대회를 열고 조선노동당의 강령과 비슷하게 강령을 개정하였다.

당 강령 서두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조선민주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받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인사들로 집결된 정당으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정부의 정강을 실천하며 부강한 민주조선을 건설할 목적으로… 과업을 내 세우고 그의 실천을 위해 투쟁한다”<sup>25)</sup>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1956년 4월 조선노동당 제 3차대회에서 조선민주당 당수인 최용건을 노동당의 부위원장직에 앉

---

25) 李禎秀, 전계서 p. 6

힘으로서 이당을 완전히 조선노동당에 예속시켜 버렸다.

1958년 부터는 조선민주당의 지방조직을 해체하기 시작하더니 1960년경에는 도당조직까지 완전히 해체해 버렸다.

결국 이당은 하부조직이 모두 없어져 버리고 상부조직만 남게 됨으로써, 뿌리없는 나무처럼 이름뿐인 당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후 1980년에 개최된 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갑자기 당명을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하였다.<sup>26)</sup>

그 배경 원인은 1981년 2월 당시의 프랑스 사회당 당수인 미테랑이 북경을 거쳐 평양을 방문하게 되어 있었고, 일본의 사회당 위원장인 아스까다·이찌오(飛鳥田一雄)도 같은 시기에 평양을 방문하는등 국제사회당들과의 유대를 강화해 보려는 속셈으로 당명을 바꾼것으로 판단된다.

「조선 사회민주당」위원장은 부주석 康良煜이 지난 83년 2월 病死한 후 6년이 넘게 그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 있었는데 89년 4월 17일, 前 조총련 부의장 李季

---

26) 장석은, 전게서 p. 22

白 (1960년 제주도 출신 67년 대의원이후 현재 8기까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계백위원장은 「조선사회민주당」의 당면과제는 “조국통일을 하루속히 이룩하기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89년 4월 문익환목사의 밀입북에 대해서도 언급, 文씨의 평양방문은 “북남사이에 다방면적인 통일 대화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서 높이 평가 찬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문목사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촉구했다.

사회민주당의 조직은 「조선기독교도 연맹」과 깊은 관련이 있는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나. 조선 천도교 청우당(朝鮮天道教靑友黨)

### <기구 및 조직>

중앙위원회

위원장 : 鄭信赫

前委員長 : 崔德新 (89년 11월 사망)

부위원장 : 최희준 리득엽

서기장 : 김정호

상무위원 : 정신혁 리득엽 김정호 정금석

조직부부장 : 문창기 정연옥

선전부부장 : 정금석

직책불명부부장 : 리병호

북한에서 종교단체로서의 정당은 천도교청우당뿐이다. 이 조직은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와 관련 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천도교청우당은 日帝치하 1919년 9월 2일 당시 金起田을 당수로 해서 창당된 적이 있었다.

해방후에는 남한에서 먼저 1945년 9월 14일 金秉淸을 위원장으로 청우당이 조직되었다.<sup>27)</sup>

1946년 2월 1일 북한에서는 소련군정의 인가를 받은 「천도교 북조선총무원」이 설립되었는데 공산치하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세력은 6.25동란 이전까지 북한에 99개의 道·郡 宗務院을 조직하게 되었다.

소련군정은 이같은 세력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섭하여 이용키로 했다. 그리하여 소련군정은 천도교 북조선총무원에서 중요역할을 해오던 김달현(咸南 高原郡 출신, 解放前 天道教 高原郡총무원장)을

27) 장석은, 전게서 p. 22

회유하여 1946년 2월 8일 「북조선 천도교청우당」을 창당하게 하였다.

그후 1948년에는 서울의 「천도교중앙본부」에서 3·1절 행사를 기하여 북한에 거국적인 反共義舉를 일으키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북한 김달현의 배신행위로 수포로 돌아가고 천도교 신자들만 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고 북한의 천도교청우당은 점차 몰락해 갔다.

1950년에 북한에서는 월북한 「남조선 청우당」을 흡수하여 「조선천도교청우당」을 발족하고 김달현이 다시 위원장을 맡았다.

그러나 6.25동란을 치르는 동안 「조선천도교청우당」은 「조선민주당」과 같이 고위당직자는 당국에 적극 협조하였으나 일반당원이나 신도들은 반공대열에 분명히 쫓겨하였다.

이에 대한 북한공산집단의 무자비한 보복은 오랫동안 계속되었고 김달현도 숙청된 것은 물론이며 1959년 市·郡 이하의 조직은 해체되고, 1960년에는 道黨 조직까지 완전히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후 청우당은 유령단체로 전락하여 조선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노동당의 정책 발표내지 행사때 지지성명



을 내는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초 남북대화가 시작되자 갑자기 「천도교청우당」을 내 세우게 되었는데, 1972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 본회의에 북한측 자문위원의 자격으로 참석한 강장수(당시 천도교청우당 부위원장)는 천도교의 교리도 모르는 노동당원이었다.

1982년 8월 23~24일 「천도교청우당」 제 6차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대회에서는 사업총화보고와 함께 당 강령, 규약개정과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특히 「남조선 및 해외 천도교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위원장 정신혁은 보고에서 “김일성을 민족의 최고영도자로, 인화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받들어 나가는 것을 일관된 원칙으로 삼아왔다”라고 전제하고 고려연방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갖 힘을 기울이겠다고 맹세했다.

1980년대에 와서 김일성은 더욱 對南統一戰線에 있어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反韓 政治亡命者 최덕신(서울, 前 天道敎 中央本部 敎領)을 포섭 그를 천도교청우당 당수로 임명하여 대남선전에 이용해왔다. 최덕신은 기자회견 때 마다 김일성을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등 대남 반미·반정부선동 선전을 적극 전개해왔다.

최덕신의 주요직책은 ①「천도교 청우당」당수 이외에 ②「조국평화통일위원회」부위원장 ③「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위원장 그리고 ④ 북한 각 종교를 연합한「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까지 맡았었다. 북한에서의 최덕신의 이 같은 감투를 보더라도 김일성이 대남통일전선에 있어 최덕신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89년 3월 16일 천도교 청우당은 전원회의에서「남조선 천도교인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북한 연방제 통일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남한의 천도교도들이 이를 적극 지지해 나설 것을 촉구했다.(최덕신은 결국 1989년 11월 북한에서 사망했다.)

## 4. 社會團體

### 가. 勤勞大衆團體

북한은 당과 근로대중조직체와의 관계를 당 규약에

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규약 제56조에 의하면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치조직이며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는 당의 외곽조직이다.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이며,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인전대이며 당의 충실한 보조자이다.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이다”<sup>28)</sup>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 규약 제57조에는 “근로대중의 조직들은 동맹원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꾸리며 동맹대열을 강화하며 조직생활과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고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통해 동맹들을 당의 두리에 결속시켜 3대혁명 불은기쟁취운동과 사회주의 경쟁운동을 전개하며 동맹원들을 혁명과 건설에 적극 동원한다”<sup>29)</sup>고 규정하고 있다.

기실 북한에는 크고 작은 근로대중조직 및 사회단체가 100여개 있다 하나, 이들 단체들은 한국의 사회

---

28) 平和統一研究所, 「北韓概要」 노동당규약 제 9장 당과 근로대중의 조직, p. 354. 1986

29) 「북한개요」 전제서, p. 354

단체들과는 판이하게 그 성격이 다르다.

북한의 각종 직능별 사회단체는 모두 ① 당의 외곽 단체로서 근로대중적 조직체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②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하는 사상교양조직이며 ③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引傳帶이고 ④ 선전기능과 ⑤ 동원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한 대남통일전선에 있어서도 그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해외 친북단체들과도 국제적 유대강화로 그 세력망 확대 역할을 다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하 북한 사회단체의 개략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근로 대중단체들의 활동상황>

89년 한해동안 당 외곽단체들인 「사로청」, 「직총」, 「농근맹」등은 김정일의 지도력 행사를 뒷받침하고 주민대상의 충실성 교양활동 강화, 노력동원 극대화를 꾀하는데 분주했다.

89년 1월 중순 사로청회의 (제 7기 14차)소집을 시발로 이어진 당 외곽단체들의 주요활동은 정례회의 개최등을 통해 노동당의 당면정책 관철에 산하조직 및 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이의 전국적 확산

을 도모하는데 주력했다.

이들 단체들의 각종선동 집회는 사로청전원회의 (제7기 14차 1.23~24, 15차 8.4), 농근맹전원회의 (제 7기 12차 4.9~10, 13차 8.4~5), 직총전원회의 (제 6 기 17차 5.5~6, 18차 8.2~3), 여맹전원회의 (제 5기 10차 5.4)를 비롯해 전국 농근맹 해설 강사회의(2.7), 사로청 모범초급단체 위원장회의 (10.16-18)등이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은 당 6기 14차 전원회의 (88. 11.28-30)에서 제시된 공작기계공업과 전자자동화 공업발전에 대한 관철문제등도 아울러 토의했다.

북한은 특히 「平壤祝典」(89.7) 이후 外部思潮의 영향과 해이된 기강을 바로 잡기위해 89년 8월에 「사로청」, 「직총」, 「농근맹」, 「여맹」등 주요 4개 단체 각각 ‘중앙위 전원회의’를 개최, 김일성의 1989년 「5.18」 교시 관철을 강조하면서 주민 사상교양 強化와 주민결속에 부심해왔다.

이하 근로대중 단체들의 연혁 및 활동상을 대략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약칭:社勞靑)

<조직 현황>

(1989년 6월 현재)

中央委員會 委員長 : 최룡해

副 委 員 長 : 현 석 김창룡 김성철 최수일  
류관진 김진범 양덕찬 리영덕  
함운건 라영수 남재환 박정선  
김광흡 사문식

執 行 委 員 : 리철신 리종기 최화석 리기천  
김경호

組 織 部 部 長 : 리학만

大學生青年部 部 長 : 리성국

學生少年部 副 部 長 : 리춘갑 한경열

出 版 部 部 長 : 차봉수

國 際 部 部 長 : 리종근

副部長 : 황종영 박영길, 指導員: 박영덕

勞動青年部 副 部 長 : 김영남

宣 戰 部 指 導 員 : 고영범

海外教育指導局上級指導員 : 한병국

青年돌격대指導局副局長 : 한복길

南朝鮮青年組織 代表 : 리국철

職責不明 副局長：박수덕

部長：신승균 강덕홍 염석부

김문현 김용현

副部長：고준일 오성일 리 혁

최호선

課長：최정기,指導員:조성길

김영섭

平壤市委員長：김동년

副委員長：리영두 유홍두 한기철

고상엽 金璟秀 리영길 한수일

「조선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사로청)은 1946년 1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으로 창립되었다. 그후 51년 1월 「남북조선民靑」을 조선 민주 청년동맹으로 통합결합하였고, 1946년 6월 「세계민주청년연맹」에 가입했다. 그리고 1964년 5월 12일 5차대회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된 바 노동당의 가장 중요한 외곽단체의 하나이다.

근년에 「사로청」은 1985년 9월 25일 사로청 7기 8차 전원회의를 양강도 혜산에서 개최한바 있다.<sup>30)</sup>

30) 内外通信 366호. 사로청 7기 8차 전원회의 (자료판) 1985.10

가입대상은 14세~30세에 이르는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학교직장은 물론 심지어 군대내에까지 「사로청」이 조직되어 있다. (7~13세는 소년단에 가입)

현재 「사로청」 맹원수는 약 4백만으로서 북한의 최대 근로대중 조직체이다.

당 규약에 의하면 “사로청은 우리의 혁명과업을 직접 계승하는 청년들의 혁명적 조직이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라고 하였다.(9장)

이러한 목적, 성격과 관련해서 「사로청」은 다음과 같은 과업을 내 세우고 있다.

- “① 청년들을 당의 사상체계로 무장시키고 당을 목숨으로 지키며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한다.
- ② 自力更生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천리마운동을 계속 견지하여 기술·문화 사상혁명을 촉진시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빨리 건설키 위해 투쟁한다.
- ③ 청년들에게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과 당 정책, 김일성노작을 연구 체득케하여 공산주의 사상과 당의 혁명전통으로 무장시켜 ‘계급적 원수’를 미



위하고 반제·지주·자본가 제도를 반대하여 혁명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투쟁한다.

- ④ 남한을 미제와 반동정치에서 해방하고 통일을 위해 투쟁하며
- ⑤ 남한의 노동청년, 농민청년, 청년학생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한다.
- ⑥ 당의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 청년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당 주위에 묶어 세운다.”

1981년 10월 20~24일 사로청 제 7차 대회는 10년 만에 개최되었는데 김일성, 김정일을 비롯하여 당·정간부들과 공산국가와 제 3세계의 친북단체들이 전례 없이 많이 참가하였으며 이례적인 것은 “남북 및 해외동포 청년학생들로 구성되는 통일촉진청년회의를 소집하자”는 제의를 했다.

또한 1983년 6월 6~7일간 함경북도 회녕(會寧)에 서 사로청 7기 4차대회를 개최하였다.<sup>31)</sup>

이 회의 의제로 「당의 領導를 받들어 나가는 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사로청의 과업」을 내 걸었

---

31) 内外通信 (자료판) 230호 1983. 7. 사로청 7기 4차대회

다.

회녕은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의 출생지로서 이 지역에 그녀를 추모하기 위한 史蹟館과 동상 등을 건립하여 혁명사적지 중의 하나이다. 이 7기 4차대회는 사로청을 김정일 세습체제 保衛의 핵심세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1985년 9월 25일 양강도 혜산에서 사로청 7기 8차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의 의제는 “김일성의 1985년 8월 6일 교시에 따라 「북부 철길건설」을 86년 10월 10일까지 끝내기 위한 사로청 조직들의 과업이었다.

산하조직으로 道(직할시)위원회, 市(구역)·郡위원회, 초급단체위원회 (공장·기업소·협동농장·교육문화 보건기관, 인민군대 및 기타단위)가 있다.

그리고 소년단을 산하에 조직하고 있는데, 어린 소년들까지 조직해서 묶어두어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려고 광분하고 있다.

1989년 8월 사로청 중앙위 제 15차 전원회의(8.4~5)에서는 김일성의 5·18교시와 김정일의 문헌 「현시대와 청년들의 임무」(1988. 10.12)에서 제시된 과업의

관철을 다짐했다.

김일성의 5·18교시는 “당의 영도밑에 각계각층 청년대중과의 사업을 하는 독자적인 정치조직으로서의 사로청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청년운동을 힘있게 진전 시키는 데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귀중한 지도적 지침”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로청의 이 전원회의에서는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근본적 우월성을 똑바로 인식시켜 그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빛내기 위해 몸바쳐 싸워나가도록 할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는 平壤祝典을 계기로 서구 自由思潮 유입을 우려한데서 온 것이다.

또한 이 전원회의에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전 민족적 투쟁에 청년들을 적극 조직동원하며 세계 진보적 청년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해외활동을 적극 벌일것”을 촉구했다.

## (2) 조선직업 총동맹(職總)

<조직 현황>

(1989년 6월 현재)

中央委員會

委員長：金鳳柱

副委員長：김국삼 김영남 윤덕산 심홍규

채준병 강종팔 김희수

執行委員：김택룡 최광국 최중삼 리성수

檢査委員會委員長：최재국

國際部 副部長：최광호 최기철 박호림

課長：리명제

組職部部長：리병하

宣傳煽動部副部長：림금동

職責不明部長：장석구 과장 김종원 럽경정

平壤市委員長：리주현 副委員長 한중이

조선직업총동맹 (이하 「직맹」으로 칭함)은 1945년 「북조선직업총동맹」으로 출발했으며, 1947년 5월에는 「세계직업연맹」에 가입했다.

조선직업총동맹은 1951년 1월, 「북조선직업총동맹」이 「노동조합전국평의회」를 흡수, 통합하여 「조선

직업총동맹」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직맹」은 10개의 산업별, 직업별,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맹원수는 220~250만명에 이르고 있다.

(금속기계공업, 화학, 건설, 임업, 공업, 동력운수 및 수산, 경공업, 상업, 교육 및 문화, 공무원의 산업별 직업별)

그리고 이단체는 「조선 농업근로자 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등 타 단체에 가입한 대상자를 제외한 30세이상의 모든 노동자, 기술자, 사무원을 대상으로 조직되어 있다.

직맹의 임무에 대해서 규약을 보면, “직업 동맹은 노동당의 옹호자이며 당의 영도하에 모든 활동을 전개한다. 직맹은 노동계급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며 그들을 당 주위에 결속시켜 당이 제기한 혁명임무수행에로 조직 동원된다. 동맹내의 당 사상체계를 확립하며, 부르주아사상의 잔재를 반대하여 투쟁한다”<sup>32)</sup>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직맹에 대하여 “직업동맹은 무엇보다도 노동계급을 공산주의적

---

32) 國土統一院, 북괴노동당 및 外廓團體現況, p. 92. 1981.8

으로 교양하는 학교이다. 그것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광범한 노동자, 사무원들을 묶어 세운 근로단체이며 당과 노동계급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다”. 또한 “노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동맹원들을 사회주의건설에 동원시키는 것이며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직업동맹조직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공산주의 교양에 첫째가는 주목을 돌려야 한다.”<sup>33)</sup>

1983년 직맹의 상반기 정기회의인 제 5차 전원회의를 4월 28~29일, 그리고 제 6차 전원회의는 8월 7~8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제 2차 7개년계획의 조기달성을 강력히 추진할 것과 간부 및 근로자들이 형식주의, 관료주의, 무사안일에 빠지는 폐단을 과감히 척결할 것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와같이 빈번한 전원회의의 소집은 부진했던 제 2차 7개년계획의 원만한 추진과 80년대 사회주의건설 「10대전망목표」의 달성에 근로자들의 노력을 최대한 동원하려는 속셈으로 판단된다.<sup>34)</sup>

34) 장석은, 전계서, p. 29

33) 상계서, p. 29

한편으로 「직맹」의 대외활동을 일층 강화하고 좌경국 노동단체들과의 유대를 더욱 긴밀히 하여 기회 있을 때 마다 대남, 대미선전과 선동 활동에 광분해왔다.

職盟은 1989년 제 8차 전원회의(8.2~3)를 개최했는데 여기서는 김일성의 「5·18」교시 관철을 다짐했고 한편 “당의 경제정책 선전, 경제선동을 활발히 벌여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이 당의 경공업 혁명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도록 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自力更生·艱苦분투의 혁명정신을 높 이 발휘하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일성의 「5·18」교시 관철을 위해서는 직맹 조직들이 “혁명성과 전투력, 창발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과 교양적 기능, 동반자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 그리고 노동계급과 직맹원들 속에서 文化情緒교양을 강화하고 藝術小組활동을 전개하며 군중체육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지난 88년 17차 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의 1974.2.19 문헌 집행정형총화와 1984년 5월 3일 문헌

집행정형총화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되었었다.

### (3)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약칭 農勤盟)

<조직현황>

(1989년 6월 현재)

中央委員會 委員長 : 박수동

副委員長 : 리종원 우종학 홍도성 박용배

조장신 최성숙 리동원

執行委員 : 사철영

中央委員 : 강성범

職責不明 副部長 : 리소영 장성권

「조선농업근로자동맹」(農勤盟)은 1945년 12월 8일 농민들의 전국적 조직체인 「전국농민조합연맹」의 조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농근맹은 1949년 12월 「국제농업 및 임업노동자 직업동맹」에 가입했다. 1951년 2월 11일 「조선농민동맹」으로 다시 발족했으며 1964년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sup>35)</sup>가 발표되

35) 1946.2.25 노동당 제 4기 8차 전원회의에서 발표



면서 「농업근로자동맹」으로 개칭 조직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대상은 농민만을 가입시키는것이 아니라 농업에 관련있는 부문에 종사하는자는 모두 가입시키고 있다. 즉 협동농장원, 국영목장원, 郡 협동농장 경영위원회 직원, 灌溉관리소직원, 농기계제작소 근로자, 농기구공장 근로자, 자재공급소직원, 가축위생방역소 직원 및 사무원까지 총망라하였다.

창설당시에 230만명이었던 것이 현재는 300만명에 이르고 있다.

「농근맹」의 규약을 보면 “농업근로자동맹은 노동당의 영도밑에 자기의 모든 활동을 조직, 전개하는 당의 믿음직한 보조자이며 당과 우리나라 농업문제와 근로대중을 연결시키는 인전대이다”<sup>36)</sup>라고 하여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의 당노선과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단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표방한 (80년 10월 6차 당대회) 10대전망목표 중의 하나인 식량증산 목표 (1,500만톤 알곡고지 점령)달성을 위한

---

36) 「북괴노동당 및 外廓團體現況」, 전게서, p. 41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것이 농근맹의 과업이며 또한 공산주의 교양은 물론 김정일 이상화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그들의 과업이다. 즉 사상 교양과 생산성 향상의 양대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농민은 노동자와 달리 공산주의 의식이 희박하여 당의 정책에 무관심하며, 협동농장에 불만이 많기 때문에 혁명화와 노동계급화의 주대상이 된다.

김일성은 “농민들이 아직도 토지소유욕과 미신같은 낡은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질책하면서 농민을 공산주의사상과 높은 혁명정신으로 무장시키려면 오랜기간이 걸려야 한다”<sup>37)</sup>고 지적했다. 또 최근에는 농촌의 젊은 세대는 혁명과 전쟁의 경험이 없어서 계급의식, 혁명의식이 낮기때문에 생산성이 더욱 떨어졌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질 때까지 사상교육의 강화를 독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85년 12월 15~16일 「농근맹」7기 6차전원회의에서는 김정일이 보낸 ‘농업근로자 동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를 소위 백과전서적 문헌이라고 칭송함으로써 농근맹사업에 김정일의 지도력을 부각시키고 있

---

37) 「북괴노동당 및 외곽단체현황」, 전게서, p. 45

다. 또한 이 모임에서 농근맹원들에게 정치사상교양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농근맹 중앙위는 1989년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 5·18교시 관철을 다짐하는 한편 “주체사상 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군중정치사업과 집체적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혁명적 교양강화”를 촉구했고, 아울러 농촌에서 3대혁명수행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근맹조직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하는데, 그 기능과 조직은 ‘초급단체’를 강화하는데 힘을 쏟으며, 모범초급단체에서 창조운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 조선민주여성동맹(약칭 : 女盟)

<조직 현황> (1989년 6월 현재)

中央委員會 委員長 : 金聖愛 <김일성의처>

副委員長 : 정명희 오연옥 강점숙

강관선 王玉煥 허창숙

書記長 : 강점숙

託兒所 및

幼兒院事業部部長 : 조정희

副部長 : 강정심 송정순

國際 部 部 長 : 량기숙

副 部 長 : 한배옥

「조선민주여성동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 1951년 1월에 「남북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된 노동당의 여성전위조직이다. 그리고 1946년 10월에는 「세계민주여성연맹」에 가입했다.

1985년 11월 17일 「여맹」창립 40돌 기념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女盟員 수는 약 250만명으로 추산되며, 주로 여타 단체(농근맹, 직총, 사로청)에 속하지 않은 일반여성 들이다. 현재 여맹위원장은 김일성의 처이자 김정일의 계모인 金聖愛이다. 여맹의 임무는 대체로 “여성들 속에서 공산주의 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정치의식과 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근로여성들의 역할을 제고시키며 김일성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바쳐 옹호 보위하고” 당의 참다운 근위대, 결사대가 되는 것이다.

1971년 개최된 「여맹」 제 4차대회에서 발표한 여맹의 당면과업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모든 분야에서 남

은 사회의 생활양식을 없애고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을 확립하기 위해 투쟁하고 ② 여성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여성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의무로 여겨야 한다 ③ 계급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고 천리마운동을 적극 추진하며 ④ 후대에 대한 교양강화로 어린이를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後備隊)로 양성하고 ⑤ 혁명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 전쟁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강화하며 ⑥ 인민군 원호사업을 강화한다”<sup>38)</sup>

특히 북한은 ‘가정의 혁명화’란 구호(1968년)아래 가정생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온 여성들을 가정에 얽매이지 않도록 한다는 미명하에 이른바 ‘밥공장’, ‘반찬공장’ 등을 건설하고 여기에 노력동원을 해 왔다. 85년 조선민주여성동맹 창립 40돌 기념보고회에서 김성애는 「여맹」에 관해서 “위대한 수령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핌 속에서 여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인 康磐石에 의하여 1926년 12월에 조직된 反日부녀회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는 등 여맹을 김일성家系偶像化와 관련짓고 있다.

---

38) 李禎秀, 전게서 p. 21

또한 85년 12월 5일에 개최한 여맹 제 5기5차 전원 회의에서는 김일성부자에 대한 충실성, 교양강화등 사상성 提高를 강력히 촉구하고 주민생활품 생산제고를 위해서 '8월 3일 模範家內작업반 창조운동'을 적극 전개하도록 촉구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여성은「여맹」이라는 조직에 구속되고 관제적(官製的) 동원범위를 벗어날수 없으며, 여성노력동원 극대화를 위해 희생되고 있다. 여맹의 산하조직으로는 道(직할시)·市(구역)·郡위원회, 직장초급단 위원회가 있다.

1989년에 들어서서 「여맹」중앙위는 제 11차 전원회의(8·23)에서 김일성의 「5·18」교시를 관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회의에서 “당 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을 실속있게 하며 강령방법을 개선하고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여 군중정치사업을 강화할 것과 군중체육운동을 적극벌일것”을 촉구했다. 또한 “8·3 모범 가내작업반 창조운동”, “누에치기운동”, “인민생활 향상과 여성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에 여맹조직이 적극 이바지할 것을 촉구했다.

## 나. 統一推進 前衛團體

북한의 통일추진 전위단체로는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在北평화통일촉진협의회」, 「조선적십자회」등이 있다.

이들 단체들은 주로 대남 위장평화통일 선전공세 및 남한 적화여건 조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노동당 전위조직이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성명, 담화등을 통해 반한·반미 모략선전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 (1)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

<조직 현황>

(1989년 6월 현재)

議長團議長：許貞淑 楊亨燮 鄭斗赫 廉泰俊

鄭信赫 리영수 변창복 金鳳柱

리연구

書記局局長：류호준

副局長：류송광 리석춘 류기익 白俊赫

張學明 김병운

參事：정이준 허성익 정리근

開城市 祕書 : 김진상

書記長 : 윤정섭

職責不明 部長 : 허성익 김창룡 김택룡 김정강

副部長 : 김철우 김평용

室長 : 김택봉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조국전선)은 1946년 2월 15일에 결성된 「남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과 1946년 7월 22일에 결성된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이 모체가 되어 1949년 6월 27일 남북민전(南北民戰)연석회의에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으로 창설된 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은 노동당을 비롯하여 우당 및 사회단체 간부들을 총망라하고 있는데 이는 대남 통일전선전술의 具現體라고 볼수 있다

현재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에 망라된 단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朝鮮勞動黨
- ② 朝鮮社會民主黨
- ③ 朝鮮天道教靑友黨



- ④ 祖國平和統一委員會
- ⑤ 朝鮮職業總同盟
- ⑥ 朝鮮社會主義勞動青年同盟
- ⑦ 朝鮮農業勤勞者同盟
- ⑧ 朝鮮民主女性同盟
- ⑨ 朝鮮文學藝術總同盟
- ⑩ 朝鮮記者同盟
- ⑪ 朝鮮工業技術總同盟
- ⑫ 朝鮮基督教徒聯盟
- ⑬ 朝鮮天道教會中央指導委員會
- ⑭ 朝鮮佛教徒聯盟
- ⑮ 在北平和統一促進協議會
- ⑯ 朝鮮民主法律家協會
- ⑰ 朝鮮學生委員會
- ⑱ 世界人民들과 連帶性 朝鮮委員會
- ⑲ 朝鮮·아시아·아프리카團結委員會
- ⑳ 朝鮮平和擁護全國民族委員會
- ㉑ 朝鮮赤十字會
- ㉒ 朝鮮올림픽委員會

「조국전선」의 기본임무는 “로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관철하며 통일을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sup>39)</sup>고 되어 있다.

즉 조국전선은 대남위장평화통일공세 및 남한의 적화여건조성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노동당의 전위단체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조국전선」을 내세워 6·25 남침이 있기 19일 전인 1950년 5월 7일 “남북한 최고 입법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총선거를 실시하자”느니 평화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제 정당·사회단체 협의회”를 개최하자느니 하는 제의를 하여 남침 계획을 위장하려고 했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그후 북한은 기회 있을때마다 조국전선을 내세워 위장평화통일방안을 계속하여 제의해 왔다.

1979년 1월 19일에는 「조국전선」의 성명을 통해 ① 7·4공동성명의 재인식 ② 남북한 상호비방방송의 중지 ③ 휴전선상의 군사활동의 중지 ④ 全民族大會소집등을 제의해 온 바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자 조국전선은 다시 위장평화통일술책으로 나왔는데 1981년 8월 6일 연합성명을 통

---

39) 장석은, 「북한의 정당·사회단체」p. 39

해 「고려연방제」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한 「민족통일 촉진대회」를 개최하자고 제의해 왔다.<sup>40)</sup>

1982년 1월 22일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이 천명되자 1월 28일 「조국전선」에서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983년 1월 18일 조국전선은 다시 연합성명을 통해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한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의해 왔으며, 1985년 4월에는 「남북국회회담」을 지지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 (2) 조국평화통일위원회(祖平)

<조직 현황>

(1989년 6월 현재)

委員長：許鎭

副委員長：鄭浚基 許貞淑 梁春길 洪起文

楊亨燮 黃長燁 崔德新 全今哲

尹基福

委員：리호림 정열모

40) 장석은, 前掲書 p. 40

書記局局長：안병수

副局長兼代辯人：박영수

責任參事：황영준

參事：김성률 정영춘 공재민

職責不明部長：리남길 허혁필 최성익

「조국평화통일위원회」(약칭 祖平)는 1961년 5월 13일 洪命憲를 위원장으로하여 결성되었는데 남한의 4·19직후 제기되었던 '남북협상론'등에 호응하기 위하여 급조된 노동당 전위단체로 등장하였는 바 위장평화통일정책을 선전하기위한 기구이다.

「조평」의 임무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조선인민 자신의 손에 의해 외국간섭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위에 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성취할 노동당의 시종일관한 방안을 지지한다”고 하여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1981년 5월 12일 「조평」은 평양에서 「조평」 20돌 기념회를 개최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위한 民族大統一戰線 구성과 주한미군철폐등을 주장

했다. 그리고 「祖平」은 이 보고회에서 미국과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 하였던 것이 특징이다.

또한 1984년 1월 25일에 「조평」위원장인 許鎡이 「3자회담」을 제의하였고, 1985년 4월 9일에는 「국회회담」을 제의하였다.<sup>41)</sup>

1989년에 와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8월 8일 “남조선 당국의 반통일 책동을 세계에 알리기 위하여”란 제하에 대남비방을 위한선전 「白書」를 발표했다.

그 내용중 핵심일부를 보면 ① “7·7선언은…… 역대의 분열주의 방안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며, 단 계론에 기초한 교류와 교차접촉 외교승인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② “팀스피리트 합동군사훈련은…… 동족간의 대화를 외면하고 외세와 함께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며” ③ “범민족대회 예비회담등…… 민간급 대화를 총칼로 탄압하고있다”고 하면서 “통일을 위해 북과 남의 각계 각층 인민들 사이에 민간급 대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당국적 차원의 대화들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는 등이다.

---

41) 李植秀, 前掲書 p. 25

이러한 주장은 북한이 7·7선언과 관련 우리정부 통일정책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통일문제를 둘러싼 우리 사회내부의 국론 분열을 획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89년 12월 13일 조평통 서기국은 미국 신형탱크 부산항 도착과 관련하여 비난성명을 발표했는데 “미제는 M-IA 브랑스 슈퍼탱크들을 끌어들이며 군사분계선 일대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 제2보병사단에 넘길것”이라 하고 “미제의 이러한 책동은 평화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염원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우리 공화국을 공격하기 위한 새로운 침략전쟁, 핵전쟁계획을 완성하기 위한 용납못할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 (3) 한국민족 민주전선 (舊 統一革命黨, 「統革黨」)

<조직 현황>

(89년 6월 현재)

委員長

副委員長 : 김혁철 이정삼 김광천 홍지영

代 表 : 오세일 김남수 신영철 장석규 리종혁

리정도 김남수 리진형 리인기 리진국

宣 傳 局 局 長 : 조광제

主體思想研究所 所 長 : 홍지영

서 울 市 代 表 : 김성민

幹 部 : 김인환

京畿地域 代 表 : 김석산

幹 部 : 김명길

全北金堤郡黨委員長 : 김준수

平壤代表部 代 表 : 조일민

日 本 代 表 部 代 表 : 김차웅

副代表 : 변태성

代辯人 : 한수미

쿠 바 代 表 部 代 表 : 리상철

<前身 : 統革黨 >

「한국민족 민주전선」(약칭 : 民民戰)의 前身은 統一革命黨(統革黨)이다.

북한 공산집단은 남한혁명조성과 적화통일을 위해 통일추진전위단체로서 69년에 남한에 지하유령조직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統一革命黨이다.

이 통일혁명당은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을 통해

대남비방 모략방송과 북괴찬양을 일삼아 왔다. 지난 10여년간 '통혁당의 북한내 주요위장행각 및 대외위장 활동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통혁당'의 북한내 위장행각 실태

일 자	성 명	가장직책	내 용
70. 11. 5	이종혁	통혁당대표 단장	○ 북한노동당 5차 대회참가, 북한찬양, 한국비난연설 *화환증정
72. 4. 24	이종혁	통혁당축하 단장	○ 김일성 60회생일 참가, *축하시낭독, 축기전달
74. 7. 18	김남수	통혁당대표	○ 북한대동강회관에서 내외기자 회견 *민청학련사건' 비난
75. 10. 9	이진영	통혁당대표 단장	○ 북한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
75. 6. 25	신영철	통혁당대표	○ 소위 '반미공동투쟁일간' (6·25남 침기념)평양시군중대회참가
76. 7. 21	김철혁	통혁당대표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결성 30주년 기념보고회참석
77. 9. 14	오수일	통혁당대표 단장	○ '김일성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평양)참가
78. 9. 9	김광천	남조선인민 대표단장	○ 북한정권 30주년 기념행사
79. 8. 25	김광천	통혁당중앙 위부위원장	○ 통혁당결성 10주년 기념 평양보고회
80. 10. 10	이인기	.	○ 노동당 제6차대회참석 *축하연설
80. 11.14	이충혁	통혁당축하 단장	○ 김일성 70회생일행사 참석 *축하연설
80. 12. 6	이종원	통혁당대표	○ 평양개최 세계기자대회 참가 *기조연설
80. 12. 8	이진국	통혁당축하 단장	○ 정권수립 35주년 행사참석

### ‘통혁명’의 주요 대외위장활동 실태

시기 및 장소	회 의 명	참 가 자 (위장직책)	주요 활동
78.11.9스페인	‘칠레’국민과의연대성국제회의	김광천(통혁명 중앙위부위원장)한등자(대표)	○ 반정부활동지지 촉구
78.11.27 일본	제 2차북한지지세계대회	한등자(대표)	○ 김일성축사낭독
79. 1.26가이아나	북한지지중남미회의	이정상(대표단장) 최일남(당원)	○ 수상면담, 기자회견, ‘전민족대회’지지촉구
79. 4. 14 인도	주체사상국제세미나	홍기영(대표)	○ ‘전민족대회’지지촉구
79. 12. 28	대외서신(최초)	통혁명 명의	○ 한국민주화, 평화통일지지촉구
80. 4. 18 일본	통혁명일본대표부설립	조범식(대표)	○ 선언문, 기자회견
80. 8. 4	대외서신(국제기구대상)	통혁명중앙위 명의	○ ‘김대중’사건모략성토문
80. 9. 6인도	주체사상아시아지역세미나	이정상(통혁명중앙위부위원장)	○ 김일성선전
80. 9.23불가리아	세계평화인민대회(137개국100여개국제기구참가)	김광천(대표단장)	○ 광주시태고발전시회 ○ 김대중석방서명운동(13명) ○ 인권유린규탄결의문 ○ 불가리아공산당과 공식연계위원회
80. 11. 13 말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11차총회	이정상(대표단장)	○ 김대중석방운동촉구
81. 3. 26 알제리	제3차 북한지지세계대회	이정상(대표단장)	○ 고려연방안지지 ○ 2개조선 반대
82. 4. 26 몽고	아·태에서의 평화와 안전에 관한지역회의	통혁명명의 대표단장	○ 한·미·일3각관계지지 주한미군철수 T-83 비난
82. 7. 체코	핵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와 생명을 위한 세계대회	"	○ 한국의 대미관계왜곡 비방

지난 15년간 통혁당을 통해 대남모략심리전을 전개해 온 북한공산집단은 남한 정국의 변화와 반미, 민족주의 경향에 편승하여 남한내 혁명조성과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85년 7월 27일 「통일 혁명당」의 명칭을 「한국민족 민주전선」으로 개칭하였다.

또한 통일혁명당 목소리방송도 동년 8월 8일 ‘구국의 소리 방송’으로 개칭한데 이어 동년 8월 15일 부터는 ‘민중의 메아리방송’을 신설 운용하고 있다.

현시점에 와서 「한국민족 민주전선」의 대남활동은 학생들과 노동자들을 연결시킨 「勞·學連繫투쟁」전열형성으로 사회변란에 초점을 두고 있다.

89년에 들어와서 「한국민족 민주전선」중앙위원회는 11월 15일 “남한내 공안통치를 분쇄하자”라는 題下에 격문을 발표하였는데 “공안정국 분쇄위해 야당과 재야가 따로 없고 노동자, 농민, 중산층이 따로없다”고 하면서 단결하여 현정권 타도에 매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89년 12월 15일 盧大統領과 野3당총재간의 청와대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한민전」은 輿圈에 대해서 뿐만아니

라 「야권에 대해서도 그 어떤 幻想이나 기대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싸잡아 비난했다.

#### (4) 在北 평화통일 촉진협의회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最高委員 김 書記局長

常務委員 : 金錫亨 박시형 최태규 유승근

委 員 : 리호림 박승현 권태희 김병희 박윤월

배중혁 신기언

1956년 7월 창립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6·25당시 남북인사 (安在鴻, 趙素昂, 尹琦燮, 吳夏英 등) 들로 구성되었는데 위장평화 통일공세를 위하여 조직된 단체이다.

1956년 후반에 이협의회는 남북인사들에 대한 대량숙청으로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되었다.

1981년 7월에는 처음으로 개최된 결성보고대회에는 김일성이 축하편지까지 보내는 등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동년 8월 15일을 기하여 남한의 정당 및 각계인사들에게 편지를 대대적으로 보내는 등 대남선전공세에 다시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하였다.

## (5)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委員長：黃長燁

副委員長：김용순 김철식 리성호 류해영 박영시

오문한 방대옥 리상설 최영화

事務總長：리성호

事務次長：백용호

書記長：한선극

常務委員：李冕相

委員：홍원배 민승필 강태무

「조선 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는 1949년 3월 24일 창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세계평화와 반제국주의, 반식민주의를 표방하여 조직된 노동당의 御用단체이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반한·반미적인 각국의 평화표방단체들과의 연계하에 반한·반미 선전활동을 전개하는것”으

로 되어있다.<sup>42)</sup>

## (6) 조선적십자회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中央委員會 委員長：孫成弼

副委員長：한응식 리시호 리성호

유경희 박영시 김정기

常務委員：한연수 서성철 송일호

최원석 백남준 박금선

書記長

副委員長：한석복 백영호

文化宣傳部 部長：김완수

副部長：서성철

國際部 副部長：박동춘

同胞事業部 部長：박영수

組職計劃部 部長：김수철

副部長：김창현

出版報道部 部長：장윤도

42) 북괴노동당 및 외곽단체, 전개서 p. 114. 1981. 8. 국토통일원

參 事 : 리종학 공상호

平壤市委員會 委員長 : 왕경학

開城市委員會 委員長 : 탁용빈

南浦市委員會 委員長 : 리준용

副委員長 : 리남인

咸鏡南道委員會 委員長 : 박재인

黃海南道委員會 委員長 : 리인재

江原道委員會 委員長 : 리남길

副委員長 : 김홍진

職責不明 部長 : 최기봉

副委員長 : 정일백 주경옥

1946년 10월 18일 「북조선적십자회」로 창설되었다가  
1948년에 「조선적십자회」로 개칭되었다.

동 적십자회의 규약을 보면 “조선적십자회는 인민들의  
대중적 사회단체로서 부강한 민주주의적 조선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국제적십자 조약에 기준하  
여 인민들의 보건·문화생활의 향상과 전쟁 및 재난시의  
피해자 구제사업을 실시하며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와 안전

을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민들에 대한 진료사업과 방역사업등의 인도적 사업에는 등한하고 본연의 임무와는 달리 노동당의 시녀노릇에만 열중하는 어용단체로 전락했다.

1971년 8월 1일 대한적십자사가 「남북한 이산가족찾기운동」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자 8월 14일 북한의 조선적십자회가 동의해 옴으로서 역사적인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89년 12월 현재 南北赤十字 본 회담은 11차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 85년 8월에는 역사적인 「이산가족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교환방문이 이루어졌었다.

89년에 와서 9월 27일 부터 남북 적십자 첫 접촉이래 11월 27일까지 일곱차례나 실무회담을 가졌었으나 북한측이 「꽃파는 처녀」, 「피바다」등 정치성을 띤 혁명가극 공연 주장으로 89년내의 교환방문 (이산가족 및 예술공연)은 무산되고 말았다.<sup>43)</sup>

북한 적십자 실무자측은 그 후에도 89년 12월 11일 전화통지문을 통해 예술단교환방문에 있어 「꽃파는 처녀」 공연을 수락할 것을 계속 요청해 오면서 90년 1월 22일에 8차

---

43) 東亞日報 (1989. 9. 28일자)



실무대표접촉을 하자면서 제의해 왔다.

북한측은 「꽃파는 처녀」의 내용이 “민족적인것으로 할것에 대한 원칙에 맞을뿐만 아니라 창작된후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천여회에 걸쳐 공연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물론 소련·중국 그리고 일본·프랑스·이탈리아 등 세계의 여러나라들에서 높은 호평을 받고 있다”하고 “유독 같은 민족 내부에서 남조선 적십자사 측만이 부정적으로 대하여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극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라 이 가극을 부정적으로 대하는 입장에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 이튿날 바로 12월 12일(1989년) 북적 손성필 위원장이 우리 적십자총재에게 “민족통일협상회의 북측준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귀측 당국, 정당, 단체들에 보내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1989년 12월14일 연락원을 판문점에 보내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희망한다”고 했는데 이는 바로 북한이 대남 통일전선의 정치적 목적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통일추진 전위단체는 이 이외에도 許貞淑이委員長으로 있는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가 있다.

## 다. 文化 · 藝體能 團體

### (1) 조선문학 예술 총동맹 (약칭: 「文藝總」)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中央委員會 委員長 : 白仁俊

第 1 副委員長 : 최영화

副委員長 : 신진순 李冕相 趙靈出

김용원

指導員 : 박수일

研究員 : 황지철 최언경

(傘下團體)

朝鮮作家同盟 委員長 :

第 1 副委員長 : 김병훈

統一文學擔當 副委員長 : 조정호

副委員長 : 김용원 김영근 정덕철

강능수 현승걸 강효순

정소천 리 맥 리인직

書記長 : 리인직

分科 委員長 : 박호동

作 家 : 리정술

朝鮮音樂家同盟 委員長：李冕相

副委員長：김원균 강영희 김학준

리한룡 김영신

評論分科 委員長：김득청

朝鮮民族音樂委員會委員長：金元均

書記長：강영희

朝鮮公演協會會長：장철

副會長：리시호

朝鮮美術家同盟 委員長：정관철

副委員長：장혁태 리한윤 최동수

分科 委員長：김진권 리재현

朝鮮演劇人同盟 委員長：李丹

副委員長：리령

分科 委員長：유화룡 김기욱

朝鮮舞蹈家同盟 委員長：김재홍

副委員長：박경실

事務長：리경룡

評論分科 委員長：조문걸

朝鮮映畫人同盟 委員長：리종순

副委員長：리승환 황경철 추석봉

주종일

書記長：리봉수

評論分科委員長：리대철

朝鮮寫眞家同盟委員長：고용진

「조선 문학예술총동맹」은 북한 문학예술 단체의 총본산이다.

1946년 3월 25일 「북조선문학예술가동맹」으로 창설되었다가 1951년 3월 10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개칭되었다.

북한에서 문예관계조직의 최상층기관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이고, 당내 문화예술부는 실무부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무원 산하의 문화예술부는 행정실무를 수행할 뿐이다.

북한에서 소위 예술인이라 불리우는 사람은 반드시 「문예총」에 가입해야 한다.

공산국가의 문학 예술정책은 사회주의적 寫實主義에 입각한 창작방법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주의적 내용과 형식의 채택은 인민성, 계급성, 당성을 강조함으로써 당의 정책 구현에 관한 선전과 교양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순수예술은 사실상 말살되고 있다.

북한의 문학 예술활동도 이러한 정책에 따라 김일성 우상화, 공산주의 인간개조, 노동의욕 提高등 정치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등장과 더불어 김은 연극, 영화의 배우들까지 직접 선발하여 제작토록 한다.

89년에 와서 최근 북한의 문학예술분야에선 미미한대로 한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지난 1910년대의 우리나라 新소설등을 시리즈로 엮어내고 있는 출간 사업이다.

최신포(最新號)인 「조선신보」(조총련 기관지)에 의하면 88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소설인 李人植작 「血의 淚」(1906년), 「鬼의 聲」(1966년) 등을 노동당소속 문예출판사에서 출간한데 이어 89년초에도 崔瓚植작 「春夢」(1914년), 李海朝작 「紅桃花」(1910년), 金祐鎭작 「花上雪」(1912년), 趙重恒작 희곡 「病者三人」, 「斷腸錄」(1914년)등을 출간했다.

이런 「신소설」등과 희곡은 한마디로 지난 1894년 甲午更張 이후 우리나라 개화기에 고대소설에서 근대소설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발생한 것으로서 개화기의 계몽주의 사조를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문학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북한이 갑자기 신소설들의 출간사업을 시작한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난시대에 우리문학에 대한 재평가나 그것을 정리하겠다는 순수한 문학사적인 입장이 아니라 대남전략의 일환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간주된다.

그 이유는 지금 남한에서 남북간 문학예술교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에서도 비정치적인 '민족문화예술'이 존중되고 있다는 선전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때문일 것이다.

신소설은 고대소설이 갖고 있는 勸善懲惡의 주제를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점이 작품속에서 으레히 긍정적인 인물과 부정적인 인물로 나누는 극히 1차원적인 갈등이론에 따르는 사회주의 리얼리즘문학들의 주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신소설 출간사업을 대남선전수단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그들의 최상급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의 주제가 「권선징악」이라고 강변한것도 결코 이같은 사실과 무관할 수 없다.

## (2) 조선 기자 동맹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 원 장 :	현준극
제1부 위 원 장 :	최관용
부 위 원 장 :	윤경택 정하천 김용학
집 행 위 원 장 :	리양훈
대외사업부 부장 :	김만석

「조선기자동맹」은 1946년 10월 12일 창립되었는데 각 신문사 방송위원회, 잡지사 종사자들의 조직체로서 노동당의 선전, 선동활동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조선기자동맹」은 1950년 9월 「국제기자동맹」에 가입했다.<sup>44)</sup>

1981년 10월 12일 평양의 「모란봉예술극장」에서 “조선기자동맹창립 35돌기념보고회”가 있었는데 당시 위원장 金基南은 보고를 통해 김일성父자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조선기자동맹은 출판 보도활동에서 주체의 원칙과 속도전을 벌일데 대한 원칙을 관철했으며,

---

44) 李植秀, 전계서 p. 31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집단적 조직선전단체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동맹은 1983년 7월에 “反帝선전을 위한 제3세계기자 강습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1985년 1월에는 평양에서 기자동맹 산하에 국제기자 강습회를 설치하여 고려연방제 선전, 한·미 비난등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있다.

이 기자동맹의 당면과제는 역시 노동당의 사회주의 건설 “10대전망목표”를 앞당겨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모든 지혜와 능력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언론을 정치선전 도구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한편으로는 노력 동원과 노력 착취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다른 한편으로 김일성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 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 (3) 조선 올림픽위원회

< 조직 현황 > (1989년 9월 현재)

委員長 : 김유순

副委員長 : 리창선 진충국 김득준 김세진 손길천



김형진

名譽副委員長：백종원

書 記 長：장 응

副書記長：박무성

委 員：서명호 김세진 석태호 한장은 안복만

조명황 김종수 김명철 박덕순 허혁필

김상부

북한은 1957년 9월 불가리아의 소피아에서 개최된 제54차 IOC총회에서 북한올림픽위원회(NOC)의 활동 범위를 북한지역만으로 승인받았다. 196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59차 IOC총회를 계기로 IOC정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마침내 1963년 10월 19일에 IOC에 가입하게 되었다.

1990년 제11회 북경 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둔 가운데 89년에 와서 11월 16일 제4차 남북체육대회담에서 團歌(아리랑), 團旗, 호칭(코리어) 문제에 합의를 보았다.<sup>45)</sup>

그러나 북경아시안 게임이 1년도 남지 않아 남북 단일팀 구성은 어려운 과제이다.

---

45) 조선일보 (89. 11. 17. 일자)

## 라. 宗教團體

1948년에 제정된 북한의 구헌법에 의하면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의식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앙의 자유를 형식상 허용하는 듯이 하고 있었으나 1972년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제54조)에는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反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종교의 자유보다는 탄압의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보다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 528조에는 “종교단체에서 행정적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교화노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신부나 목사, 승려등 교직자의 행위에 대해 처벌을 명시한 것이고, 형법 257조에는 “종교단체에 기부를 강요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종교의 재정적 기반을 박탈하는 것이 된다.

북한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종교를 아편으로 간주 해방후 제한-탄압-말살-이용의 단계적 조치를 거쳐 오고 있는데, 7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화해와 남북대화가 개시되면서 북한에도 마치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존재하는 양 외국 종교인을 초청하거

나 국제 종교행사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행동해 왔다.

북한은 국제혁명역량 강화상 대외선전 기구로서 이용가치가 있을 때에는 그 존재를 강조하지만 앞에서 헌법, 형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인민들을 종교와 격리시키고 있는 것이다.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북한의 종교이용은 세가지 전략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는, 대남전략적 차원에서 反韓, 반미의 혁명조성과 통일전략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둘째는, 종교를 통한 국제연대성 강화로 국제혁명역량을 구축하고,

셋째는, 종교를 김일성 개인우상화 또는 주체사상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하 북한 종교단체의 연혁 및 활동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조선 기독교도연맹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 원 장 : 강영섭
-------------

부위 원 장 : 리철 김득룡 럽국렬  
서 기 장 : 고기준 (사회민주당 조직부장)  
평양시위원회부위원장 : 김은복  
부 장 : 박노영(직책불명)  
봉수교회 담임목사 : 리성봉

1946년 11월 18일 「북조선 기독교연맹」이 창설되었다가 1947년 2월 24일 「기독교 민주연맹」으로 개칭되고, 여러차례 개칭과 잠적의 과정을 거쳐 다시 1974년에 「조선기독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출현하였다.

북한은 70년대에 들어서서 남북한이 대화를하기 시작하자 거기에 상응하여 종교단체가 표면화 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1972년 이후 유신체제가 일부 종교인의 반유신활동으로 비판을 받게되자, 북한은 갑자기 종교단체를 내세워 비난성명을 발표하고 세계각국의 종교단체에까지 호소문을 보내는등 선전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북한에도 기독교도가 있는 것처럼 세계의 이목을 호도하기 위하여 1974년 8월에 「세계기독교 협의회(W.C.C)」에 가입신청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동 협의회에서는 현재 북한의 信者數, 성직자수, 教會數등을 조

사하기 위하여 북한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겠다고 하자 북한 기독교도연맹측은 스스로 철회함으로서 북한에 종교가 없다는 것을 시인한 결과가 되었다.

1975년 1월 인도의 쿿따얌에서 열린 「아시아 기독교평화회의」<sup>46)</sup>에 대표단을 파견하였고, 1976년 11월에는 체코의 부르노에서 열린 「기독교 평화회의 정치경제토론회」에도 참가하여 「조선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는등, 종교활동을 벗어난 정치활동으로 국제종교단체와 연대성 강화를 시도하여 대남, 반미선전에 종교를 이용하려고 혈안이 되어 왔다.

그리고 1981년 11월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북한 해외동포 기독교자간 대화」를 통하여 「고려연방제」의 실현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이와 같은 모임은 종교를 빙자한 정치활동으로 모두가 노동당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것이다.

그후에도 북한은 1986년 2월 「조선기독교도연맹」과 「조선불교도연맹」은 「세계기독교 평화회의」 및 「세계교회협의회」(W.C.C)와 세계각국의 불교도들에게 팀

---

46) 이 회의는 소련에 의해 조직된 아시아, 東歐지역의 공산국가중심의 모임이며, 참가자들은 좌익기독교 인사들로 되어 있다.

스피리트 훈련을 비난하는 편지, 방송등으로 대남비방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86년 9월 「조선기독교도연맹」대표단 (고기준 서기장 등 4명)이 WCC국제위원회가 주관하는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때 WCC주선으로 한국측 대표 (5명)와 최초로 대화를 나누었다.

간과할 수 없는것은 북한은 전시·선전용 종교서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1983년 부터 북한자체의 문법에 따라 번역한 신구약성경과 찬송을 대량으로 발간했다는 것이다.

북한측은 평양에있는 봉수교회 이외에 “가정교회가 평양에 40개등 전국에 500여개가 있고 신도수는 1만 명이며, 목사는 1972년부터 신학교를 운영하여 20명을 배출, 현재에는 30명의 목사가 있으며 장차 목사가 될 신학생이 20명 있다”<sup>47)</sup>그 수적 근거는 회의적이다.

89년 8월 재미 「LA한인장로교회 金義煥 목사가 평양에서의 「한민족복음화대회」개최 (89.10 또는 90. 5. 10 개최예정)를 협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북한

---

47) 尹東鉉, 「北韓의 宗教實態」 p. 45, 1988.10

기독교 대표들과 개최원칙에 합의, 잠정협정서를 맺은 바 있다. 그런데 잠정협정 내용을 보니 순수한 복음화 대회가 아니라 통일문제, 민족자주 문제등 정치적 색채가 짙은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었다고 말한바 있다.<sup>48)</sup>

## (2) 조선 불교도연맹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 원 장 : 박태호(朴泰浩)

부 위 원 장 : 황병태 홍화두

서 기 장 :

상 무 위 원 : 한경련

국제부부장 : 리건일

책임지도원 : 황병태 김상연

「북조선 불교도연맹」은 1948년 11월 26일에 창설되었다가 1948년에 「북조선 불교연맹회」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50년부터는 잠적했다가 우여곡절끝에 1972년에 갑자기 「조선 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가 출현

---

48) 朝鮮日報(89. 9.29)

종교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대남, 반미, 반정부 소요선동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으나 그 정체는 곧 잠적했다.

동연맹은 강령에서 “정부정강을 받들고 이것을 철저히 실천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인민군대에 대하여 적극 원조하고… 불교도들에게 근로정신을 앙양시켜…” 운운하여 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하는 어용 선동선전 단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후 북한에서의 불교행사는 오랫동안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1983년 4월 21~22일까지 평양에서 「조선불교도연맹」 제 8차대회를 개최하고 공개선전 한데서 그 모습이 다시 나타났다.

이 대회에는 각종 위장종교단체들의 고위간부들과 「조선불교도연맹」의 각급조직들에서 선발된 대표들이 참석하였다는 것이다.

이 대회에서 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는 “사업총화보고”라는 것을 통해 “북한의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위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는 연맹사업의 강화 발전이 당면과업이다”라고 역설했고 「남조선과 해외 불교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



하는등 종교를 통한 노동당의 혁명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했다.

이때부터 북한은 각종 국제불교 행사에 대표단을 파견하고 세계각국의 불교단체들과 연대성을 맺어나 가려고 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 5월 22일 佛紀 2532주년을 기해서는 묘향산의 普賢寺등 각 사찰에서 기념법회를 진행한것으로 알려졌다.<sup>49)</sup> 이것이 처음 확인된 북한 불교계의 종교의식 행사인 듯하다.

북한 공산정권수립후 최초로 진행된 이 불교의식에서는 보현사<sup>50)</sup> 주지 靑雲仙師가 연설을 통해 이땅에 지상淨土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남조선통치를 끝장내야 하고 조선반도를 비핵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반미정치선동으로 일관했다.

1988년 7월 북한은 김정일 지시에 의거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해석한 「해제본」을 출간했다고 선전하였다.

전 25권으로 된 팔만대장경 해제본은 사회과학원

---

49) 장석은, 전게서, p.49

50) 普賢寺에는 현재 3명의 승려가 있고 북한의 승려 총수는 300명이 된다고 하고있음.

민족고전연구소에서 수년간에 걸쳐 완성시킨 것인데 이 해제본 편찬시 내렸다는 김정일의 지시는 ① 원본을 최대한 살릴것 ② 경전단위 내용을 개괄하여 서술하고 경전 매권은 요약하여 알기 쉽게 할 것 ③ 해제시 주관적, 비판적 분석을 하지 말것 ④ 사전류, 목록류등 불교관계 자료들은 장단위로 간략하게 소개할 것 등이다.

북한은 89년도에 들어와서 불교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 왔는데 그 대표적 활동상황을 보면 불교 4대기념일의 한가지로 손꼽는 음력 12월 8일 「세존성도절」의 법회이었다. 북한은 이날을 맞아 평양시에 위치한 龍華寺를 비롯 전국사찰에서 승려, 불교신도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대적인 기념법회를 진행했다고 선전하였다.

그들은 成道節법회를 개최하면서도 순수한 불교의식을 하지 않고 정치적 집회의 모습을 다분히 노출시켰다. 즉 “북과 남이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정치협상회의 성사”, “두개의 조선책동 반대”, “연방제 통일방안 지지” 등을 역설했던 것이다.

그리고 1989년 1월 20일 묘향산 보현사에서 「조국 통일 기원 법회」를 가졌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이와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인 徐義玄 조계종 총무원장은 89년 10월 14일 개최되는 평화통일 기원 한강연등법회에 북한불교도 30여명을 초청키로 했다.

사실 북한불교도연맹 박태호위원장은 89년 7월말 「백자불상」을 在美 法陀스님을 통해 한국에 전달하고 한강연등제 행사에 참여할 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90년에는 한국측 불교도들을 초청, 대동강에서 통일기원연등제를 갖자고 제의한바 있는데<sup>51)</sup> 결국 서울 한강연등제에는 북한 불교측이 참석하지 않았다.

### (3)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 원 장 : 최덕신(1989.11.사망)

제1부위원장 : 鄭信赫

부 위 원 장 : 김철민 최희준

51) 세계일보 (89. 9. 27 일자)

서 기 장 : 김정호 (천도교청우당 서기장)

1946년 2월 1일 「천도교 북조선 총무원」으로 창설되었다가 그후 유명무실한 단체로 잠적했으나 갑자기 1974년 2월 15일 「조선천도교회 중앙지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현하여 「남조선 종교인과 해외교포 종교단체 및 세계 종교단체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유신헌법과 민청학련사건등을 비판하고 종교인, 학생들의 반정부 소요선동 선전을 전개하였다.

북한은 종교를 김일성 개인우상화 또는 주체사상과 연결시키고 있다.

예컨대 89년 4월 5일 천도교 창도 1백29주년 기념 행사에서 최덕신이 기념보고를 하는 가운데 김일성이 제시했다는 「새조선건설노선」을 천도교의 이념과 교인들의 염원에 「전적으로 부합된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일성 주석님이 영도하시는 올바른 정치를 받들어 나가야 인내천(人乃天)의 이념을 구현하여 후천개벽을 이룩하고… 지상천국건설의 최고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변한데서도 알 수 있다.

최덕신은 죽기전 기상천외의 책을 펴냈다. 그것이 바로 「김일성 그이는 한울님」이라는 책인데 김일성이 바로 「한울님」이라는 것이며 최덕신은 김일성을 천도교의 한울님 자리로 끌어올린 것이다.<sup>52)</sup> “참으로 김일성 주석님 이시야 말로 천도교에서 말하는 ‘한울님’이시다… 역사를 주름잡아 자기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민족의 태양이실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포괄하는 온 우주를 한품에 안아 한없이 심원하고 무한대한 체험과 지혜와 사랑의 은총을 베푸시는 전지전능하신 현세의 한울님이시다. 우러르고 우러러도 끝이 없고, 따르고 따라도 이르지 못하는 것이 한울님의 품이다. 그러니 어찌 필설로서 그 위대함을 다 그릴수 있을 것인가”(1989. 4. 7 「민민전」방송)하여 드디어 김일성을 천도교에서 칭하는 한울님 자리로 끌어올리는愚態를 보였다.

#### (4) 조선 천주교인 협회

(89년 6월 현재)

위 원 장 : 장재철

부위원장 : 문창학

52) 國民日報 (89.9.26일자)

평양 장충성당 신도회장 박경수

해방당시만 하더라도 북한의 천주교는 평양, 함흥, 덕원에 3대교구가 있는등 교세면에서 남한을 압도했지만 지금은 겨우 88년 6월 30일에 「조선 천주교인 협회」가 설립되었고 동년 9월에 평양시 선교리 장충동에 「장충성당」이 건립되었다.<sup>53)</sup>

1987년 6월 북한은 평양에서 개최되는 「南南協力에 관한 비동맹특별각료회의」에 로마 교황청 대표 베르텔르 대주교와 張益 神父 (張勉 前총리 아들)를 업저버자격으로 초청 (張益 신부는 약 2주간 평양 체류) 하였다.

그 다음해 1988년 4월 로마 교황청은 평양초청 답례로 부활절 미사에 북한 대표 7명 (신자 2명포함)을 초청한바 있다.<sup>54)</sup>

북한의 천주교계 활동은 지금까지 존재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했던 것인데 88년 6월 30일 「조선천주교도연합회」를 결성, 천주교활동을 본격화 했고

53) 東亞日報(89. 9. 26일자)

54) 尹東鉉, 「北韓의 宗教實態」, p. 46

10월에는 평양에 천주교성당을 완공했다고 한다.

그외에도 북한은 로마교황청에 1명을 파견 신부수업을 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졌고 87년도에는 1명을 더 파견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2~3년내에는 북한에 공인된 신부가 나올 전망이다.

최근에 이르러 북한이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배경에는 세계기독교협의회(WCC)와 교황청에서 북한지역선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내 기독교 및 천주교에서 북한지역 선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1989년에 들어와서 김수환 추기경은 동년 10월 4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세계성체대회」에 평양 장충성당 신도회장 박경수(55세)를 비롯한 20명의 북한 천주교신자를 초청한바 있으나 북한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 북한은 지난 몇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평양 장충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한바 있는 張益 神父에게 세계성체대회에 북한신자를 초청해 줄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있다.<sup>55)</sup>

---

55) 東亞日報 (89. 9. 26일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초청했을때는 「조선 불교도연맹」이나 북한 천주교측이 서울 각대회에 참석하지 않은것은 ① 종교인 교류에서 오는 개방화를 우려한 때문이며 ② 한편으로는 문익환 목사·임수경 양의 평양 밀입북사건, 서경원의원의 간첩사건등을 구실로 참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5) 조선 종교인 협의회

### < 조직 현황 >

위원장 : 최덕신(조선천도교중앙위원장)

89년 11월 사망

부위원장 : 강영섭(조선기독교도 연맹위원장)

박태호(조선불교도 연맹위원장)

장재철(천주교인협회장)

북한은 1989년 5월 30일 새로 「조선 종교인 협의회」를 결성했다.

여기에는 천도교 중앙위원장인 최덕신이 위원장으로 선정되었고 동부위원장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의 책임자들을 지명했다.

이렇게 볼때 북한은 최덕신을 통해 북한의 종교계를 망라, 정치 조직화하여 대남 종교계 침투공작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려고 했음을 알수있다.

1989년 5월 30일 각 종교단체의 결성모임에서 조선종교인협의회는 「남조선 종교인협의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함과 아울러 이 협의회가 “국제적 규모에서 날로 발전하는 종교인들의 친선과 연합의 세계적 추세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까지 주장했다.

이 이외에 북한에는 「조선 유교연맹」이 있는데 그 조직현황 및 활동상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북한의 종교현황)

구 분	단 체	신도수	교직자	종교시설	비 고
기독교	조선기독교 도연맹  (위원장: 강영섭)	1만여 명	• 목사:20 명  • 전도사, 장로 : 300명	• '88.11.봉수 교회완공  *500개의 가정교회	• '89.3부환 예배(봉수교 회) • '89.4남북교 회쌍방 협의 회개최(미국 워싱턴)
천주교	조선천주교 인 협회(위 원장: 장 재 철)*'88.6결 성	800여 명		• '88.10장충성 당완공	
불교	조선불교도 연맹(위원 장:박태호)		• 승려300 명	• 사찰60여개	• '89.1성도절 기념법회(용 화사등)  • '89.3열반절 기념법회(보 현사등) • '89.8조국통 일기원법회 (금강산표훈 사등)
천도교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 원회(위원 장:최덕신)				• '89.4천도교 창도129돌 천 일절행사진행

※ '89.5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최덕신)결성

마. 기 타

(1) 조선 학생위원회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 원 장 : 김창룡  
부 위 원 장 : 현 석 염석부 최화식 리철신 리화순  
리종기 리성국 리종근 리찬  
위 원 : 최종철 김광윤 윤광택 강지영  
서 기 국 장 : 차명국  
평양시위원장 : 오영건

「조선학생위원회」는 1960년 5월 20일 창립되었는데 이것은 한국에서 4·19후 극도로 혼란한 시기에 일부 서울대학생들이 판문점에서 “남북학생회담을 개최하자”는 제의에 호응하기 위하여 급조된 어용단체이다.

이 학생 위원회가 하는 일은 각종 국제학생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세계 각국의 좌익계 학생들과의 연계하여 반한·반미활동을 전개 하는것이 주된 임무이다.<sup>56)</sup>

## (2) 조선 민주과학자 협회

위 원 장 : 미상

---

56) 북괴노동당 및 외곽단체 현황, 국토통일원, p. 128, 1981

부위원장 : 洪起文

위 원 : 곽대홍

「조선민주과학자 협회」는 1956년 3월 18일에 발족되었다.

이 협회는 과학자, 기술자들로 구성되고 노동당의 노선과 방침에 따라 과학정책을 수행하는 전위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각종 국제과학자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과학·기술의 성과를 해외에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sup>57)</sup>

또한 남한의 과학자 및 기술자를 대상으로 각종 성명이나 호소문을 보내는등 대남정치선동 선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3) 조선 민주법률가 협회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 원 장 : 최창현

부위원장 : 박영시 김종두 리성호 김철운

서 기 장 : 백영호

「조선민주법률가 협회」는 1954년 11월 30일에 창립되었다.

---

57) 북괴 노동당 및 외곽단체, 전게서 p. 130, 1981

이 협회는 노동당의 어용법률가들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노동당의 권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이다.

그 주요 활동을 보면 각종 성명이나 담화를 통해 정치사상범을 비방하고 정부를 비호하며 대남선전선동과 반한·반미적인 각국의 법률가 및 법률가 단체들과의 연계하에 반한·반미 모략선전등에 주력하는 것이다.

이 이외에도 양형섭이 위원장으로 있는 「조선의회 ‘그룹빠’ 위원회가」 있고 「조선 중앙변호사협회」(위원장 리교명), 「조선 반핵평화위원회」(위원장 리몽호), 「조선 외교협회」등이 있다.

#### (經濟部門)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부문인 「국제무역 촉진위원회」를 보면

위원장 : 리성록

부위원장 : 류인관 송범용 리세용 김석진

서기장 : 리상준

부서기장 : 권민환

상무위원 : 김종현 한영흠

상무취체역 : 장정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외에도 「조선 건축가동맹」(위원장 : 김용상)  
이 있고 「조선 과학기술총연맹」(위원장 : 리자방)등이  
있다.

## 5. 國際 親善 및 海外親北團體

### 가. 國際親善團體

#### (1) 조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원장 :	이몽호
부위원장 :	리성호 오문한 리철신 리현식 천연옥 리석룡 변승덕 장세극 한익수
위원 :	한병칠 김종형 최완수 박춘서 현성진
참사겸 일본 국 장 :	변승덕
참 사 :	리종호 류한용
협 력 국 국 장 :	김종근
제 2 국 국 장 :	전성찬

제 5 국 국 장 : 리청일

사업제 1과 과 장 : 김대식

출판과 과 장 : 림종연

지도원 : 차순혁 김대식 백봉규 남승호

해외부 보좌관 : 정용준

직책불명 국 장 : 리송일 오국일 김도윤 차병진

김유철 강주일 최지철 리성범

부 국 장 : 리선용 리호열 리준영 이동철

함영호 김진석 김태석 허석철

처 장 : 한방세

과 장 : 리종혁 최철 리필곤 서인수

주형삼

이 위원회는 1956년 4월 민간수준의 친선 및 문화 교류를 앞세우고 중립국을 비롯한 서방제국에 침투하여 대회활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창립되었으며, 이 단체는 1955년 「반동」회의를 계기로 북한이 중·소일변도 외교에서 중립국·신생국을 겨냥한 다변외교로 전환함에 따라 급조되었다.

조선 대외문화연락 위원회는 노동당 국제부 및 정무원 외교부, 문화예술부 등과 긴밀한 연계하에서 활

동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민간외교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산하기관으로는 해외각국에 조직되어 있는 각종친선협회, 「김일성사상 연구소조」, 「조선지지 연대성위원회」등이 있다.

## (2) 조선·아시아·아프리카 단결위원회

### < 조직 현황 >

(1989년 6월 현재)

위원장 : 金鳳柱

부위원장 : 리성호 리석룡 명창선 강주일 박영시

리호남 강종팔 정동욱 천연옥

서기장 : 방대옥

1956년 5월 31일에 창립된 「조선·아시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1955년 「반동회의」이후 북한이 중립국 외교를 표방하면서 아시아·아프리카지역의 신생국가에도 외교침투공작을 확대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외정책 변화는 오랫동안 중·소편향외교 중심에서 탈피하여 1966년 소위 '자주노선'을 표방하면서 조심스럽게 신생국가에 접근해 가는 외교정책노선을 나타낸 결과이다.

이 조직은 아시아·아프리카 사람들과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반한·반미 모략선전에 앞장서서 행동하고 있는바 노동당의 전형적인 외곽 어용단체이다.

### (3)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 < 조직 현황 >

위원장 : 이몽호

부위원장 : 장세극 리성호 리석룡 한익수 김상준

정기철 김형우 오문환 기묘순 최용근

천연옥

북한은 70년대 비동맹외교를 강화하면서 “세계평화와 반제, 반식민주의 투쟁을 하는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라는 노동당의 어용단체를 형성, 운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남북한 외교경쟁

을 의식하고 수적 열세를 만회하기위해서 신생후진국 외교를 강화했고 이의 일환으로 대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의 각종 친선협회를 만든것이다.

이와같은 단체의 주된 활동은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하여 해외의 비동맹권국가와의 연대성 관련기관에 반한·반미 모락선전을 하는 일이다.

이러한 조직은 이 외에도 「조선·대양주(大洋洲)친선」협회가 있는데 위원장은 오문환이다.

또한 「조선 라틴아메리카」및 「카리브海」지역 친선협회가 있는데 그 위원장은 리철신이며 부위원장은 강세국, 사무장은 리호열이다.

#### <세계 지역별 국가간의 親善團體현황>

##### (1) 아시아·태평양지역 (89년 6월 현재)

※ ( )안은 위원장

- 朝 · 「네팔」 친선협회(위원장 오문환)
- 朝 · 「뉴질랜드」 친선협회(허광옥)
- 朝 · 「말디브」 친선협회(오문환)
- 朝 · 「말레이시아」 친선협회(김유순)
- 朝 · 「몽고」 친선협회(윤기정)
- 朝 · 「방글라데시」 친선협회(박수동)

- 朝 • 「스리랑카」친선협회(강병모)
- 朝 • 「싱가포르」친선협회(리영섭)
- 朝 • 「아프카니스탄」친선협회(리종두)
- 朝 • 「월남」친선협회(리상철)
- 朝 • 「인도」친선협회(김봉주)
- 朝 • 「인도네시아」친선협회(천연옥)
- 朝 • 일본우호촉진 친선협회(부회장 : 손성필)
- 朝 • 中 친선협회(리자방)
- 朝 • 「캄프치아」친선협회
- 朝 • 타이 친선협회(오문환)
- 朝 • 파키스탄 친선협회(주현옥)
- 朝 • 「파푸아 뉴기니」친선협회(전령률)
- 朝 • 「피자」친선협회(리성찬)
- 朝 • 필리핀 친선협회(오문환)
- 朝 • 호주 친선협회(한익수)

## (2) 중동지역

- 朝 • 「南 예멘」친선협회(리종수)
- 朝 • 「레바논」친선협회(부위원장 송관조)
- 朝 • 「르완다」친선협회(리종수)
- 朝 • 「리비아」친선협회(김봉주)

- 朝 ・「모리타니」 친선협회(류금선)
- 朝 ・「수단」 친선협회(림형구)
- 朝 ・「시리아」 친선협회(윤기정)
- 朝 ・「알제리」 친선협회(윤기정)
- 朝 ・「아랍」 친선협회(변영립)
- 朝 ・「요르단」 친선협회(강종팔)
- 朝 ・「이라크」 친선협회(김복신)
- 朝 ・「이란」 친선협회(주현옥)
- 朝 ・「팔레스티나」 친선 및 연대성위원회(김봉주)

### (3) 아프리카 지역

- 朝 ・「가나」 친선협회(김득준)
- 朝 ・「감비아」 친선협회(박민수)
- 朝 ・「기니」 친선협회
- 朝 ・「기니비사우」 친선협회(채희정)
- 朝 ・「나이지리아」 친선협회(최기룡)
- 朝 ・「니제르」 친선협회(천연옥)
- 朝 ・「레조토」 친선협회(김치호)
- 朝 ・「말리」 친선협회(윤기정)
- 朝 ・「마다가스카르」 친선협회(장철)
- 朝 ・「모리셔스」 친선협회(김창룡)

- 朝 • 「모잠비크」 친선협회(손성필)
- 朝 • 「베냉」 친선협회(박수동)
- 朝 • 「부룬디」 친선협회(김창국)
- 朝 • 「부르키나파소」 친선협회(우종학)
- 朝 • 「상투메프린시페」 친선협회(변영립)
- 朝 • 「세네갈」 친선협회(리자방)
- 朝 • 「세이셸」 친선협회(심상국)
- 朝 • 「시에라레온」 친선협회(리성호)
- 朝 • 「앙골라」 친선협회(리석룡)
- 朝 • 「이디오피아」 친선 및 연대성위원회(변영립)
- 朝 • 「우간다」 친선협회(심홍규)
- 朝 • 「자이르」 친선협회(명창선)
- 朝 • 「잠비아」 친선협회(황수명)
- 朝 • 「적도기니」 친선협회(지재용)
- 朝 • 「中央아프리카」 친선협회(리재운)
- 朝 • 「짐바브웨」 친선협회(심홍규)
- 朝 • 「코트디부아즈」 친선협회(리상설)
- 朝 • 「콩고」 친선협회(천연옥)
- 朝 • 「탄자니아」 친선협회(변영립)
- 朝 • 「토고」 친선협회(부위원 강정철)
- 朝 • 「튀니지」 친선협회(리성호)

#### (4) 東·西歐 地域

- 朝 · 「노르웨이」 친선협회(최장룡)
- 朝 · 「덴마크」 친선협회(김성건)
- 朝 · 「루마니아」 친선협회(리재운)
- 朝 · 「룩셈부르크」 친선협회(김득준)
- 朝 · 「벨기에」 친선협회(리철신)
- 朝 · 「불가리아」 친선협회(변영립)
- 朝 · 「佛」 친선협회(박영철)
- 朝 · 「西獨」 친선협회(정성철)
- 朝 · 「蘇」 친선협회(리종률)
- 朝 · 「스웨덴」 친선협회(박영시)
- 朝 · 「스위스」 친선협회(리성호)
- 朝 · 「스페인」 친선협회(박영시)
- 朝 · 「아이슬란드」 친선협회(리철신)
- 朝 · 「아일랜드」 친선협회(리성호)
- 朝 · 「英」 친선협회(양형섭)
- 朝 · 「澳」 친선협회(리철신)
- 朝 · 「伊」 친선협회(부위원장 : 최용근)
- 朝 · 「체코」 친선협회(김응호)
- 朝 · 「폴란드」 친선협회(오성렬)

- 朝 ・「폴투갈」 친선협회(한희호)
- 朝 ・「핀란드」 친선협회(정준기)
- 朝 ・「화란」 친선협회(리성호)
- 朝 ・「히랍」 친선협회(리철신)

#### (5) 美洲地域

- 朝 ・「가이아나」 친선협회(리몽호)
- 朝 ・「니카라과」 연대성 위원회(최정근)
- 朝 ・「도미니카」 친선협회(노성찬)
- 朝 ・「말디브」 친선협회(오문환)
- 朝 ・「멕시코」 친선협회(김영남)
- 朝 ・「바베이도즈」 친선협회(김창룡)
- 朝 ・「베네주엘라」 친선협회(지창익)
- 朝 ・「볼리비아」 친선협회(김일산)
- 朝 ・「브라질」 친선협회(한익수)
- 朝 ・「세인트루시아」 친선협회(류호준)
- 朝 ・「수리남」 친선협회(지재룡)
- 朝 ・「아르헨티나」 친선협회(주현옥)
- 朝 ・「에콰도르」 친선협회(한기원)
- 朝 ・「우루과이」 친선협회(채준병)

- 朝 • 「칠레」 친선협회(桂應泰)
- 朝 • 「캐나다」 친선협회(한익수)
- 朝 • 「코스타리카」 친선협회(李國益)
- 朝 • 「콜롬비아」 친선협회(로성찬)
- 朝 • 「쿠바」 친선협회(정송남)
- 朝 • 「파나마」 친선협회(孫成弼)
- 朝 • 「페루」 친선협회(채준병)

## 나. 海外 親北團體

### (1) 「재미 한국청년연합」(韓統聯, Young Koreans United)

미국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재미 한국청년연합」은 1983년 2월 친북인물 최진한, 김운하 등이 조직한 것이다. 이들은 재미교포사회에 의식화 교육을 통해 반미감정을 유발하여 주한 미군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등을 주장하면서 체제전복을 선동하기위해 이 단체를 결성했다.

이들은 “재미동포들에게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일깨우고 건전한 시민의식을 주입한다”는 표면상 명목을 내세워 「LA 민족학교」를 설립했다.

이 민족학교를 거점으로 민족교육을 병자하여 현정



부 전복 및 민주정부수립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공적인 반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재미 한국청년연합」은 지부조직으로 워싱턴, 뉴욕, LA, 시카고, 시애틀, 덴버, 필라델피아, 달라스, 뉴잉글랜드등 10개지부 조직을 두고 있으며 총회장은 강원모이며 15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안정을 위한 최선의 길은 사회주의를 통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것이며, 기회가 있는 대로 북한을 방문하여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라고 선동하고 “한국의 사회주의화는 현재의 학생데모로는 이루어질수 없으며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2) 「在 유럽 民族民主運動 協議會」(일명:유럽민協)

서베를린 “Schone Berger Ufer 53”에 소재하고 있는 「在유럽 민족민주운동협의회」는 70년대 이후 서독의 “동백림 간첩단 사건” 관련자들인 정규명, 윤이상, 김성수 등이 주동이되어 「民建會」(민주사회건설협의회)등 반정부단체를 결성 활동하다가 87년 11월 이들은 9개 단체 대표를 규합 89년 1월 「재 유럽 민족민주운동협

의회」로 확대발족하였다.

9개 산하단체는 다음과 같다.

- 「민주사회건설 협의회」
- 「재독 한인노동자연맹」
- 「전태일 기념사업회 유럽 지부」
- 「재독 한국여성모임」
- 「한독문화협회」
- 「한마음 조합」
- 「서베를린 노동교실」
- 「한민련 유럽본부」

이들 단체들의 투쟁목표는 대외적으로는 ‘반외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자주적 평화통일’ 달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폭력혁명에 의해 현 한국정권 타도, 민중민주정권 수립후 북한과의 민족통일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다.

### (3) 在日 한국민주統一聯合(韓統聯)

구 「韓民統」(한국민주화회복 통일촉진국민회의)이 1989년 2월 12일 조직 개편후 「在日 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 개칭되었다.

곽동익이 의장으로 있는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은 東京都 千代田區에 소재하고 있는데 韓統聯의 성격은

- “한국의 민주회복”이라는 구호하에 북한 및 조총련으로 부터 공작자금과 지령을 받아
- 反民團・반한활동을 자행하는 이른바 북한의 해외 통일전선을 구축하기위한 전위조직이다.

韓統聯은 중앙위원회 및 오사까, 교토, 가나가와, 동해(나고야)등 4개 지방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은 약 1500명에 이른다.

최근동향을 보면 1988년 6월 10일 남북학생회담 탄압관계 규명 성명을 발표하고 88서울 올림픽을 “민족분단 고정화”로 규정하였다.

韓統聯의 「5대강령」은 다음과 같다.

- ① 한국에 대한 외세의 지배와 간섭배제, 민족자주권 회복
- ② 파쇼독재정권 타도
- ③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해 노력
- ④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비동맹중립화 모색
- ⑤ 재일동포의 민족권리를 옹호하고 전해외동포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등으로 되어있다.

## 6. 결 론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북한의 통치체제는 한마디로 독특한 「神政體制」로서 김일성 1당 독재체제이며 그 밖은 모든 政黨社會團體들은 노동당 외곽에서 당의 노선과 방침에 따라 당의 정책을 관철하는 선동선전 매체의 수단에 불과한 들러리 정당(우당)과 사회단체들이다.

조선노동당은 “人民의 地上樂園인 共產主義社會로 建設하기 위해 전체 인민을 승리에로 조직 동원한다”는 선봉조직이며 혁명의 참모부이다.

다시 말하면 1당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은 명목상의 友黨(「조선사회민주당」, 「조선천도교청우당」)을 존립케 함으로써 북한에도 마치 복수정당이 존재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이들 友黨은 대남제외가 있을때나 反韓·反美 선전선동에 이용하기 위한 때에만 등장시키는 허수아비黨으로 利用되고 있을 뿐이다.

북한에서의 모든 사회단체들은 노동당의 완벽한 통제하에 묶여 있는 조직들로서 대중조직이라기 보다는 “당이 대중을 통치하기 위해 이용하는 하나의 조작기

구”라고 보는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사회단체의 조직들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引傳帶」라는 말이 표현해 주듯이 獨立性이나 中立性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노동당의 전위조직으로서 “당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결정된 정책을 대중에게 침투시켜 획일적인 정치사회에 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에 있어서의 사회단체들을 多元的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활동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사회단체들과 같은 차원의 시각에서 보아서는 안된다. 북한에서는 사회단체들이 자율적인 사회압력집단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 상향적으로 의사를 투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전위조직」으로서 오직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조직체들이다.

이같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의 사회단체들은 주민들에 대한 통제기능, 사상교양기능, 선전선동기능, 동원기능, 그리고 좌경 국제단체들과의 연대성장화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를 개최하고 보고회의 형식을 빌어 김일성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면서 의례히 “남조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반한·반미선전 선동에 악의에

찬 모략·비방만을 일삼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한국의 정국이 불안하거나 소요가 잦은 시기를 택하여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하자느니 성명, 담화, 호소문, 심지어 편지공세까지 퍼면서 선전선동을 일삼아 왔다.

이는 바로 북한공산집단이 노동당의 友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를 남한의 상황에 따라 대남통일전선형성에 이용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東歐共產圈의 內部變化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特徵은 共產黨 1黨獨裁體制가 점차 또는 급격히 퇴색해가는 趨勢다.

폴란드, 헝가리등에서는 非共產聯政體制가 들어섰고 共產黨書記長이 辭任 또는 逐出·처형되었다.

複數政黨이 대두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東·西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後 동독은 공산당 1당독재를 폐지하기 위한 「憲法수정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다.

東歐全體가 1黨독재체제가 퇴색되어가면서 1989년 12월 22일 해가 저무는 가운데 발생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은 東歐의 마지막 스탈린식 독재자인 루마니아의 니콜라이 차우세스쿠부부가 집권 24년만에 닷새간의 流血참상끝에 처형되었다는 사실이다.

東歐諸國의 전반적인 1당독재체제의 퇴색, 특히 루마니아의 절대권자 차우세스쿠의 스탈린식 족벌독재체제의 붕괴가 북한 김일성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차우세스쿠의 말로를 목격하고 있는 폴란드의 노조 지도자 바웬사는 인터뷰(89. 12. 22)에서 “쿠바, 베트남, 북한의 정권들이 그들의 인민들과 대화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 내년 (1990)에 붕괴될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注目할 것은 東歐와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6·4天安門사태진압에서 보았듯이 中國사회주의 保守強硬派들이 學生·勞動者들의 民主化 붕기를 流血진압하는데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는 점이다. 아시아에서는 金日成도 流血진압 성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김일성독재체제는 다른 공산국가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독특한 神政體制라는 점이다. 신격화된 김일성은 스탈린이나, 모택동, 호지명과도 다르며 축출된 동독의 호네커 서기장이나 처형된 차우세스쿠와도 다르다.

과연 북한의 全體주민이 주체사상으로 신격화 되어 있는 김일성을 보고 물러가라고 할수 있겠는가?

다만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① 아무리 폐쇄사회라 하더라도 해외를 드나드는 가운데 서구민주주의 발전 사회의 자유와 인간존엄성을 본 엘리트층 존재 ② 김일성 부자세습체제와 특히 김정일에 대한 불만증대 ③ 권력층내 보수·강경파와 개혁주의·합리주의 지향자들 간의 갈등 ④ 동구급변이 주는 충격, 특히 김일성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독재자로 남고 있다는 심리적 불안감, 초조감이 쌓여 그 자신도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가정을 상정해 볼수 있다.



北韓의 政黨·社會團體 現況

---

---

1990年 2月 15日 印刷

1990年 2月 20日 發行

發行處：國土統一院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中區 獎忠洞2街 山 5-19

---

---

(국통연 90-1-1)

